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32호 【루계 제25741호】 주체106(2017)년 8월 20일 (일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적들의 포악한 제재를 단호히 짓부시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침입식사상사업방법의 요구대로 사상공세의 대상을 때로 정하고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퍼붓여야 합니다.》

집중적인 사상공세로 만리마대진군을 적극 추동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조작해낸 유엔《제재결의》를 전면배격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에 접한 청안남도당위원회와 남포시안의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전민총돌격전에로 더욱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화선식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평안남도당위원회에서

평안남도당위원회에서 집중강연선전활동으로 대중을 반미대결전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선동공세작전을 짜고들어 그들이 원쑤격멸의 의지안고 만리마속도창조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게 하고있다.

도당위원회는 대중을 만리마속도창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 목적밑에 도당위원회 직외강연강사들을 망라한 집중강연선전대를 조직하였다.

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는 대고조전투장들에서 집중강연선전활동의 실효를 높여 그 생활력이 최대로 과시되게 하는데 힘을 넣었다.

선전선동부에서는 집중강연선전대원들의 수준이자 강연의 실효이라는 관점에서 그들을 도안의 중요생산단위들에 파견하기에 앞서 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었다.

선전선동부에서는 집중강연선전대의 활동거점을 도안의 중요부문으로 정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2.8직동청년탄광에서 강연선전의 첫 포성을 울린 집중강연선전대원들은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안의 탄광들을 순회하며 강연선전활동을 공세적으로 벌리였다. 대륙간탄도로케트《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의 대성공으로 우리 조국을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려세우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모신 긍지드높이 석탄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킬데 대한 내용을 가지고 집중강연선전대원들이 진행한 강연은 설득력있고 호소성이 높은것으로 하여 가는 곳마다에서 대중의 절찬을 받았다. 남양탄광에 나간 집중강연선전대원들은 준비해가지고온 지원물자를 탄부들에게 넘겨주고 탄차도 밀면서 높은 석탄증산성과로 만리마선구자대회를 떳떳이 맞이하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집중강연선전대원들은 북창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를 비롯한 도안의 탄광부문을 순회하며 강연선전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고있다. 이에 고무된 도안의 탄광부문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멸적의 의지를 안고 매일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시, 군당조직들에서도 집중강연선전대활동을 참신하게 벌려나가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도안의 모든 시, 군들에 강연담당일군들과 공로자강연강사, 직외강연강사들을 망라한 집중강연선전대가 조직되여 명활약을 하고있다.

실천을 통해 강연선전의 위력을 체험한 순천시당위원회 일군들은 집중강연선전대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려 농업근로자들을 당면한 영농전투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있다. 무서적인 합평도 조직하여 강사들의 강연술을 세련시켜나가게 하였다. 강연을 구수하게 하는데다가 능란한 언변술까지 겸비된 집중강연선전대원들의 강연은 풀베기전투에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을 혁신에로 고무추동하고있다.

양덕군당위원회는 능력있는 직외강연강사들과 공로자강연강사들로 집중강연선전대를 조직하는것으로 그치지 않고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그들이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게 하고있다. 풀베기전투가 한창인 군안의 협동농장들에 나간 집중강연선전대원들은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시도 읊으면서 강연선전활동을 화선식으로 벌려나가고있다. 전투장을 부단히 이동하면서 이들이 벌린 집중강연선전활동에 고무된 이곳 농업근로자들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5 000여t의 풀거름을 더 생산하는 혁신을 일으켰다. 집중강연선전대원들은 군문화회관전설장과 온하리살림집개건전투장, 축산기지건설장에서도 강연선전활동을 기동적으로 벌려나감으로써 공사속도를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있다.

덕천시당위원회, 정천군당위원회를 비롯한 시, 군당조직들에서도 집중강연선전대활동을 참신하게 벌려 대고조전투장들에서 비약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게 하고있다.

도안의 중요생산단위들과 시, 군의 영농전투장들을 순회하며 집중강연선전대원들이 벌려나가는 화선식강연선전활동은 최후발악을 하며 미쳐날뛰는 승냥이 미제를 정의의 철퇴로 무자비하게 징벌할 의지안고 만리마속도창조를 위한 전민총돌격전에 떨쳐나선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키고있다.

본사기자 손영희

남포시안의 각급 당조직들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에 접한 남포시안의 각급 당조직들에서 반미대결전에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화선식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전민총돌격전으로 전투현장들이 부글부글 끓어번지게 하고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민족사적대사변들이 련발적으로 일어나고 원쑤들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아보려고 발광하는 준엄한 들의 책동을 폭로단죄하고 천만군민의 철의 의지를 표명한 공화국정부성명에 접한 즉시 청년동맹원들의 심장마다에 전절한 반제계급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드세게 벌리고있다. 그리하여 단 하루동안에 수만명의 청년들이 조선인민군 입대, 북대를 열렬히 탄원하였다.

반미대결전과 경제강국건설투쟁에서 기적적성과들이 련발적으로, 다발적으로 일어나게 하는데서 시안의 예술선동력량이 크게 한몫하고있다.

시예술단과 시예술선전대, 중요공장, 기업소기동예술선동대와 각지 녀맹예술선동대원들은 만리마속도창조로 들끓는 전투현장들에 나가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퍼붓여대고있다. 이들은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해 높은 계급적각성을 가지고 긴장하게 살며 투쟁할데 대한 문제,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발휘할데 대한 문제 등을 가지고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경제선동활동을 참신하게 벌려 대중의 심장에 불을 지피고있다.

시안의 각급 당조직들의 힘있는 정치사업에 의하여 전투분위기는 날로 고조되고있으며 중요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 수산기지들과 건설장들마다에서 련일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고있다.

특파기자 주창선

가성소다생산능력확장공사 마감단계

2.8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에 접한 2.8비날론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일심단결,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미제의 단말마적발악을 쳐갈길 의지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가성소다생산능력확장공사를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9일현재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가성소다생산능력확장을 위한 총진축공사량의 99%를 수행하고 가열기를 비롯한 각종 설비들과 장치물조립도 98%로 해내는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화학공업부문에서는 2.8비날론련합기업소의 생산을 활성화하며 중요화학공장들의 능력을 확장하고 기술공정을 우리 식으로 개조하여 여러가지 화학제품생산을 늘여나가야 합니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분별없는 《전쟁불사》광증은 2.8비날론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가슴가슴을 원쑤에 대한 적개심으로 활활 타오르게 하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인민생활향상과 화학제품생산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가성소다생산능력확장공사를 하루빨리 완공하기 위한 투쟁에로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책임일군들은 가성소다생산능력확장공사장에 나가 우리 공화국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방악적으로 가로막기 위해 또다시 조작해낸 적들의《제재결의》를 련속공격,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불길로 짓뭉개버리자고 하면서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심장에 불을 지펴주고있으며 걸린 문제를 풀기 위한 대책도 세워주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원쑤들을 무찌르는 심정으로 가성소다생산능력확장공사에서 위훈을 창조하도록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리고있다.

공사장의 그 어디에서나 신념의 붉은기가 펄펄 나붓기고 선진선동력량과 수단들이 총동원되여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이 활기있게 벌어지고있다. 일군들이 들끓는 전투현장에서 대중과 고락을 함께 하면서 앞세를 메고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는 속에 전투장마다에서는 새 기록, 새 기준을 창조하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미제와 온갖 적대세력들이 날강도적인 유엔《제재결의》를 또다시 조작해냈다고 하여 조금도 두려울것은 없다고 하면서 가소제직장의 전투원들은 전해공정과 정류공정건축공사를 불이 번쩍 나게 다그치고있다.

염산직장의 전투원들은 쌓이고쌓인 원쑤들에 대한 증오심과 복수심을 총폭발시키며 증발농축공정건축공사와 설비조립에서 련일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15보이라계통을 비롯하여 중요대상과제를 맡은 여러 직장 전투원들의 일손에서도 번개가 일고있다. 김혁청년돌격대원들은 오늘의 현실은 오직 자기 힘밖에 믿을것이 없고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 진리를 더욱 깊이 새겨안으며 건축공사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가성소다직장과 염화비닐직장의 전투원들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전쟁불사》광증은 아메리카제국의 비극적종말만을 불러올것이라고 하면서 만만한 배심과 투지로 공사를 본때있게 내밀어 매일 계획을 어김없이 넘쳐 수행하고있다.

통성기계련합기업소,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경성애자공장, 함흥청년전기기구공장, 성천강전기공장을 비롯한 련관단위 공장, 기업소들에서 가성소다생산능력을 확장하는데 필요한 각종 전동기들과 펌프, 전기기구 등을 제때에 생산보장하여 공사를 다그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자력자강의 무쇠마치로 오만무례하게 날뛰는 미국에 단호하고도 무자비한 강타를 안길 멸적의 기세로 떨쳐나선 련합기업소와 련관단위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불굴의 투쟁에 의하여 가성소다생산능력확장공사완공의 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특파기자 김경철

자강력제일주의기치높이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정양양말공장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년간생산계획 빛나게 완수

사리원강철공장에서

사리원강철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지난 3월 20일까지 상반년 강철, 압연강재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로 증산투쟁, 창조투쟁, 돌격투쟁을 계속 과감히 전개해나감으로써 7월 26일까지 년간 강철, 압연강재생산계획을 101%, 106%로 앞당겨 완수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공장당조직에서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고경찬영웅소대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도록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려 그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켰다.

공장참모부에서는 과학기술을 앞세워 증산의 지름길을 미리하며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종업원들의 앙양된 열의가 그대로 생산성과로 이어지도록 하였다.

강철직장에서는 교대조직을 짜고들고 합리적인 용해조작방법을 받아들여 용해시간을 단축하였으며 교대당 5-6차지의 쇠물을 뽑아 압연강재생산에 필요한 강철을 제때에 생산보장하였다.

압연직장의 로동자들은 지난 7월초 한주일이 걸린다던 가열로보수를 단 하루동안에 끝내고 압연강재생산을 줄기차게 내밀었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자력자강의 위력이자 과학기술의 위력이라는것을 명심하고 두뇌전, 기술전의 된바람을 세차게 일으켰다.

4.15기술혁신돌격대에서는 전문공장에서만 만들수 있다던 메탈들을 자체로 제작할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고심어린 연구와 수십차의 시험끝에 공장자체의 힘으로 만들어냄으로써 생산정상화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속에 수많은 기술혁신안들이 생산에 도입되여 지표별생산량은 더욱 늘어나게 되였다.

본사기자

증송투쟁의 불길 더욱 세차게

철도운수부문에서

철도운수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미제의 단말마적발악을 쳐갈길 멸적의 기상안고 두줄기 궤도우에 증송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려가고있다.

상반년에 이어 7월 화물수송계획을 105.6%로 결속한 이들은 8월에도 일평균 기관차실동키대수보장계획을 109.3%로 넘쳐 수행하며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하는 물동수송에서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최후승리에 대한 확신과 튼튼한 배심을 가지고 대담한 공격전, 전인민적인 결사전을 벌려 기어이 인민의 만복이 꽃피나는 사회주의경제강국을 일떠세워야 하겠습니다.》

공화국정부성명에 접한 철도성의 일군들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제재압살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릴 비상한 각오를 안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에 필요한 물동을 원만히 수송하기 위한 사업을 진공적으로 내밀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성에서는 각 철도국들과의 긴밀한 련계속에서 기관차의 실동키대수를 늘이고 화차들의 회귀일수를 줄여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고있다.

철도운수부문의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모든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이 가렬한 전화의 불길속에서 전시수송을 보장한 전세대 로동계급의 투쟁정신으로 수송성과를 확대하도록 하기 위한 집중적인 사상공세를 들이대고있다.

철도화물수송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고있는 기관차부문의 수송전사들이 원쑤격멸의 기상안고 기관차실동률을 높여가며 두줄기 궤도우에 증송의 기적소리를 힘있게 울려가고있다.

상반년 7월에 년간 화물수송계획을 빛나게 완수한 길주기관차대《붉은기》5378호와《붉은기》5419호, 사리원기관차대《붉은기》5315호, 청진기관차대《붉은기》5310호, 회령기관차대《붉은기》5142호, 고원기관차대《붉은기》5103호 작업반원들이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기상을 높이 떨치며 수송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특히 년간 화물수송계획을 2배이상 초과완수한 고원기관차대《붉은기》5103호 책임기관사 김수국동무는 소공구와 예비부속품들을 넉넉히 마련해가지고 운행중 자검자수를 착실히 진행하며 혁신의 앞장에서 계속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역부문과 렬차승무부문에서도 대고조전투장들에 더 많은 물동을 수송하기 위한 증송투쟁, 창조투쟁, 돌격투쟁이 활발히 벌어져 전례없는 혁신적인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순천, 은산, 철만산, 장방역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앞선 차갈이방법과 짐원천을 적극 탐구동원하여 3년분 화물수송계획을 수행하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성천, 하천, 룡개역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2년분 화물수송계획을 완수한 기세로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줄달음치고있다.

렬차승무부문의 수송전사들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증송투쟁을 과감히 전개하고있다. 얼마전 남포렬차승무대 강서렬차승무중대가 년간 화물수송계획을 104%로 완수하고 단천렬차승무대 강병철, 김해일동무들이 2년분 화물수송계획을 앞당겨 수행한데 이어 렬차승무부문에서 년간계획완수중대와 2년분, 년간 화물수송계획완수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놀라운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화차수리와 검사를 맡은 객화차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도 증산돌격의 함성드높이 련일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있다.

본사기자 정경철

멸적의 의지안고 풀베기성과 계속 확대

황해남도와 강원도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유기질비료를 많이 생산하여 지력을 높이고 땅을 걷우자면 밀보리짚도 리용하고 풀베기도 적극적으로 하면서 축산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대륙간탄도로케트《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에서 또다시 성공하였다는 격동적인 소식에 접한 황해남도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높이 풀베기전투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풀베기전투가 시작되여 지금까지 도적으로 380여만t의 풀을 베여들이였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모든 농장들에서 장마철피해막이대책을 철저히 세우는것과 함께 풀베기와 풀거름생산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시, 군들에서는 선진선동력량을 총동원하여 대중을 풀베기전투에로 불러일으키는 선전선동의 북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였다. 특히 선동원들의 역할을 높여 그들이 풀베기전투의 앞장에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도록 하였다.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직기에 많은 풀을 베여들일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시, 군협동농장들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그날계획은 그날로 무조건 수행하도록 요구성을 높이였다.

안악군에서 혁신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군일군들은 김매기와 병충해막이, 장마철피해막이대책을 세우면서 풀베기전투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만단의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는데 힘을 넣었다. 그리고 농장일군들과 함께 현지를 밟으며 풀원천을 모조리 찾은데 기초하여 풀베기전투에 력량을 집중하였다. 결과 21만여t의 풀을 베여들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배천군 일군들도《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을 치며 돌파구를 열어나갔다.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전방인 농업전선을 지켜선 자각을 안고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은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높이 풀베기전투를 힘있게 벌리였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많은 풀을 베여들이였다.

연안군 일군들은 대중속에 들어가 풀베기가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해설해주면서 그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였다.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를 지켜선 전초병이라는 자각안고 분발해나선 농업근로자들은 풀베기전투에서 전례없는 위훈을 창조하도록 그들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려나가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더 많은 풀을 베여들여 질좋은 거름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에로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시, 군들의 협동농장경영위원회일군들은 풀베기시기를 정확히 정하고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력량을 집중하여 풀베기일정계획을 무조건 끝내도록 요구성을 높이고있다.

만리마선구자대회장에 더 높은 알곡증산성과를 안고 랫랫이 들어서기 위해 떨쳐나선 도안의 협동농장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풀베기실적이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다.

도안의 농업부문 당조직들에서는 선진선동수단들을 전투현장에 집중시키고 경제선동을 힘있게 들이대여 풀베기전투분위기를 고조시키고있다.

금강군 속사, 현리, 신교, 화천협동농장들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풀씨가 앉기 전에 풀을 베야 거름의 질이 좋아지고 알곡생산을 늘일수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높이 세운 일정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있다.

김화군안의 통현, 수태, 탑거협동농장들에서는 작업반, 분조, 세대별풀베기과제를 정확히 주고 농업근로자들이 매일 많은 풀을 베여들이도록 하고있다. 특히 풀베기가 농자물비때관리와 겹쳐 진행되는 조건에 맞게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하여 베여낸 풀을 그날로 날라다가 퇴적장에 쌓게 하고있다.

이천군 장동, 은행정, 산암, 문동속산농장들에서도 산이 많은 유리한 조건을 리용하여 많은 풀을 베여들이고있다.

천내군을 비롯한 바다가에 위치한 시, 군들에서도 풀원천이 부족한 조건에 맞게 작업조직을 치밀하게 짜고들어 성과를 확대해가고있다. 이곳 협동농장들의 일군들은 밭머리와 회뚝을 비롯한 주변의 풀을 모조리 베여들이고 멀리 떨어진 산판들에 올라 풀원천을 적극 찾아내면서 풀베기를 힘있게 내밀고있다.

이밖에도 법동군 룡포, 상서, 로탄협동농장을 비롯한 도안의 모든 협동농장들에서도 소농기구들과 운반수단들을 빈틈없이 갖추고 풀베기에 력량을 집중하여 그날계획은 그날로 어김없이 수행하고있다.

특파기자

5대교양을 강화하여 우리 당사상진지를 철통같이 다지자

높은 책임감과 혁신적인 일본새

통천군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모든 사업의 개선은 일군들의 혁신적인 안목과 창조적인 일본새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5대교양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일군들이 어떤 관점과 립장에서 어떻게 혁신적으로 일해나가는가에 따라 5대교양사업에서 새로운 방법론이 나오게 되고 그 실효를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는것이다.

하다면 일군들의 혁신적인 안목과 일본새, 그것은 과연 어디에 기인되는것인가.

5대교양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벌려 그 실효를 높여나가고있는 통천군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이 그에 대한 좋은 대답으로 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열욕심, 진취적인 사업태도를 가지고 최대의 마력을 내야 하며 당과 인민앞에 자기의 충실성과 실천력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지난해 어느날 군안의 당조직들에서 진행하고있는 5대교양사업정형을 알아보던 군당책임일군은 일군들의 일본새를 놓고 생각이 깊었다. 직관물을 통한 위대성교양을 비롯하여 5대교양의 형식과 방법이 적지 않게 고정격식화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사상교양사업을 직접 책임지고 집행하는 군당위원회일군들속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있었다. 우에서 내려온 5대교양과 관련한 정치사업자료들을 아래단위들에 그대로 배포하는것으로 자기의 임무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일군들도 있었고 그 수행정형도 전화로 보고받는것으로 그치는 일군들도 있었다.

이러다나니 단위마다에서 진행되고있는 5대교양사업은 회수와 형식일면에만 치우치게 되였고 그 실효성은 크게 나타나지 못하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사상사업에서 공식화된 방법이나 만능의 처방이란 있을수도 없다고 교시하시였다.

군당책임일군은 그 근본원인을 단순히 해당 일군들의 경직된 사고방식이나 실무화된 일본새에서 찾지 않았다. 전적으로 당사상전선의 기수라는 숭고한 책임감이 부족한데로부터 나오게 된다고 보았다.

이로부터 군당위원회에서는 사상교양사업을 벌려나가는데서 일군들의 책임감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에 주되는 힘을 넣었다.

군당일군들의 현실침투를 무엇보다 중시했다.

지난해 통천협동농장의 가을걷이실적이 근적으로 제일 뒤떨어지고있을 때였다.

군당위원회에서는 선전선동부 일군들로 집중경제선동대를 무어 이 농장에 파견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집중경제선동대는 절세위인들의 위대성교양과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비롯한 5대교양을 예술선동, 직관선동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벌려나갔다.

결과 농장에서는 애국주의정신과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정신이 적극 발휘되여 가을걷이와 낟알털기를 지난 시기보다 한달이상 앞당겨 끝내는 혁신적인 성과를 이룩하였다.

지난 10여년간 있어보지 못한 놀라운 성과앞에서 군당일군들은 자기 사업에 대한 더없는 긍지와 보람을 느끼게 되였으며 당사상전선의 제일기수로서의 책임감을 더욱 높여나갈 결의를 가다듬게 되였다.

군당위원회에서는 또한 5대교양사업을 참신하게 벌려나가고있는 일군들의 모범을 소개선전하는 사업과 예술영화를 통한 교양사업을 일군들의 책임감을 높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공정으로 보고 적극 밀고나갔다.

대중교양에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좋은 성과를 이룩하고있는 군당선전선동부 무부장 리주일동무와 영예군인어구공장, 건의봉사판리소, 군인민병원 일군들의 사업경험을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 여러 계기를 통하여 진행되였다. 얼마전에는 송전리 선동원들인 리정실, 지복선동무들이 진행하는 5대교양의 형식과 방법을 놓고 군적인 보여주기사업이 의의있게 진행되였다.

《군당지도원》, 《기다려지는 사람》을 비롯한 예술영화상영과 그 실효모임 역시 일군들의 자각을 더한층 높여주는 중요한 공정으로 되였다. 이 과정에 군안의 모든 사상일군들과 당초급선전일군들은 자기 사업에 대한 더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맡은 사업에서 책임성을 더 높이 발휘해나가게 되였다.

군당선전선동부의 일군들은 5대교양을 참신하게 벌려나가는데서 지난 시기에 나타나던 일련의 부족점들을 찾아내고 여러가지 선동자료들과 악기, 직관선전도구를 보충하여 항일유격대식배낭을 완벽하게 갖추고 임의의 시간과 장소에서 대중교양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준비하였다.

또한 지난 시기의 경험에 토대하여 6월초부터 기타와 저대, 북을 비롯한 여러가지 악기들을 배합하여 영농전투로 들끓는 협동벌들을 순회하면서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경제선동활동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대상의 특성과 조건, 준비정도에 맞는 옳은 교양방법을 찾기 위해 군당선전선동부 일군들은 사무실이 아니라 들끓는 전투현장에서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고있다.

창조적인 사색과 진지한 탐구로 이어진 군당일군들의 혁신적인 일본새에 의해 5대교양사업의 형식과 방법은 나날이 늘어만났다.

5대교양자료카드, 록음편집물을 통한 교양, 군당일군들의 예술공연…

이것은 그대로 자랑찬 실천적성과들로 이어졌다.

국수집, 은덕원 등이 군자체의 힘으로 훌륭하게 개건되고 농기계작업소, 농기구공장에서 이동식벼탈곡기와 같은 능률높은 농기계들이 생산되고있다. 도자기공장, 옻공장을 비롯하여 군안의 많은 공장들이 상반년 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앞당겨 완수하게 되였으며 군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큰 걸음을 내짚게 되였다.

이곳 군당위원회의 사업경험은 5대교양을 참신하게 벌려나가는데서 일군들의 혁신적인 안목과 창조적인 일본새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것은 전적으로 자기 사업에 대한 일군들의 높은 책임감에 기초하고있다는것을 다시한번 확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윤명철

함흥시 성천강구역당위원회 사업에서

품을 들인것만큼 결실이 크다

함흥시 성천강구역당위원회에서 선전선동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품을 들여 5대교양의 실효를 높여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에서 새로운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면 교양, 감연, 선동망들과 출판보도수단들이 신속히 총동원되여 중앙의 일군들로부터 심심산골의 농장원들에 이르기까지 속속들이 알려주어야 합니다.》

구역당위원회는 우선 당일군들과 초급선전일군들의 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었다.

지난해와 올해에 구역당위원회는 강사, 선동원들로 신흥지구 혁명전적지와 마전혁명전적지에 대한 답사를 조직하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과 불굴의 신념이 백박치는 혁명적구호문헌들과 사적물들을 보면서 강사, 선동원들은 우리 당의 혁명전통의 력사적뿌리에 대하여 다시금 깊이 인식하고 투사들의 혁명적신념을 뼈에 새기게 되였다.

당위원장 리철동무의 발기에 따라 올해에 구역당위원회는 당일군들로 신천박물관참관을 조직하여 그들이 풍부한 자료를 가지고 계급교양을 참신하게 진행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구역당위원회는 또한 강사들과 선동원들이 풍부한 자료를 갖추고 5대교양을 하루 세끼 밥을 먹듯 꾸준히 진행하도록 조직사업을 면밀하게 하였다. 지난 6월초 구역인의 학습강사, 강연강사, 선동원들의 5대교양자료집에 대한 보여주기사업이 진행되였다. 구역당위원회는 수백건의 실감있는 자료를 마련하여 5대교양에 리용하고있는 성천강온하리복숭장과 구역랑정사업소의 강사, 선동원들을 본보기로 내세우고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따라세웠다. 그리하여 구역인의 당초급선전일군들속에서는 자료집을 잘 만들고 학습회나 강연회시작전에 그리고 작업의 쉴참에 5대교양자료를 해설하는것이 습관화되게 되였다.

구역에는 혁명가유자녀기동대, 집중강연선전대, 동녀맹예술선동대, 도서해설선전대 등 선전선동력량이 그쯘히 갖추어져있다. 이들의 활동준비에 큰 힘을 넣어 5대교양에서 높은 실효를 보장할수 있게 한것도 본받을만 하다.

구역당위원회는 혁명가유자녀기동대가 려명거리건설장과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투장, 시안의 전투장들에서 신념교양주제의 선전선동활동을 참신하게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동녀맹예술선동대들과 구역출판물보급소가 위대성교양에서 큰 몫을 맡아하도록 이끌어주었다.

최근 집중강연선전대활동을 위한 준비를 잘하여 기동적인 집중강연선전으로 대중의 심장마다에 원쑤격멸의 의지와 불굴의 신념을 심어준 실례를 놓고보자.

무위원장 조명철동무를 비롯한 선전선동부 일군들은 공화국정부성명이 발표되자마자 집중강연선전대의 강연선전내용을 그에 맞게 새로 갖추도록 하였다. 《3. 18혁명》과 《7. 4혁명》을 거쳐 7. 28의 기적적승리를 안아오시여 우리 공화국을 최강의 대륙간탄도로케트보유국으로 우뚝 올려세워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영원불멸할 업적을 감동깊이 되새겨주는 위대성자료와 멸적의 의지를 백배해주는 노래 《우리의 총창우에 평화가 있다》 등을 새로 반영하도록 하고 여러차에 출연준비를 보아주면서 품을 들였다.

집중강연선전대는 구역안의 공장, 기업소들과 살림집건설장을 비롯한 주요전투장들에서 전투성과 호소성이 강한 집중강연선전을 공세적으로 들이댔다.

그 실효가 대단했다. 함흥후방가족은하피복공장을 비롯하여 여러 공장, 기업소의 생산이 비약적으로 장성했다.

당조직들이 선전선동력량을 발동시키는데 품을 들인것만큼 사상사업의 성과가 이룩된다는것을 성천강구역당위원회 사업은 다시금 확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김향란

선전선동수단의 리용과 그 실효

백암군 동계협동농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남강도 미제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이 극도에 달한 현정세의 요구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5대교양을 더욱 강화하자면 선전선동수단들을 잘 리용하여야 한다.

백암군 동계협동농장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경험이 이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일하는것은 정치사상사업의 원칙적요구입니다.》

보리씨불임전투를 시작하던 날 초급당위원장 김석동무는 마음이 흐뭇하였다.

초급당위원회에서 영농전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기 위해 선동원들이 선동활동에 필요한 준비품들을 빠짐없이 마련하도록 하였고 그들에게 특색있는 이동식음향증폭기재도 입식으로 갖추어주었으니 대중의 정신력발동에서 큰 실효를 가져올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그러나 며칠후 분조별 전투실적이 서로 차이나는 문제를 놓고는 생각이 깊었다.

초급당일군은 곧 선동원들의 활동정형을 료해해보았다. 선동원들은 초급당위원회에서 짜준 일정대로 자기 사업을 진행하고있었다.

그렇다면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사색을 거듭하던 초급당일군은 선군시대 모범선동원인 정순옥동무가 있는 제1작업반 1분조로 나갔다. 정순옥동무의 선전선동활동을 유심히 살피는 과정에 초급당일군은 중요한것을 발견하게 되였다. 선전선동수단을 리용하는 방법이 다양하였다.

얼핏 보면 별치 않은것 같았지만 조건과 환경, 대중의 심리에 맞게 선전선동수단들을 잘 리용하고있는 이런 방법들은 그 실효가 컸다. 바로 그래서 1분조 농장원들의 전투열의가 높았을 조건과 환경, 대상의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리용하고있었던것이다.

실례로 분조원들이 분산되여 일하는 조건에 맞게 포전은 물론 그들이 많이 오가는 길목에 이동식전투속보판과 경쟁도표를 세워놓고 그 사이에 5대교양자료들을 비치해놓았는가 하면 5대교양자료카드를 나누어주어 작업의 쉴참이나 포전으로 오갈 때 읽도록 한것을 비롯하여 선전선동수단을 리용하는 방법이 다양하였다.

그 이튿날 초급당일군은 이동식음향증폭기재를 이동식포전방송기재로 전환시켜 멀리 떨어진 포전들에서도 5대교양사업을 집중적으로 벌리도록 하였다. 이렇게 되니 농장원들모두의 전투열의는 더욱 높아졌으며 이날에 농장은 군적으로 앞선 단위로 자랑을 떨치게 되였다.

얼마전 남강도 미제가 조작한 유엔《제재결의》와 관련한 공화국정부성명이 발표되였을 때 원쑤격멸의 의지를 안고 당면한 영농전투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일군들과 농장원들을 적극 고무추동한것도 초급당위원회에서 선전선동수단들을 옳게 리용하여 5대교양을 짜고든 결과이다.

이처럼 선전선동수단들을 합리적으로 효과있게 리용하여 5대교양의 실효를 비상히 높인 이곳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기풍은 얼마나 좋은가.

본사기자 허일무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않는 사상과 의지의 강자들로 억세게 준비해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 —평양종합인쇄공장에서— 본사기자 한광명 찍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평안북도를 현지지도하신 50돐 기념보고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평안북도를 현지지도하신 50돐 기념보고회가 19일에 진행되였다.

보고회에는 도안의 당, 정권기관, 경제기관, 근로단체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평안북도당위원회 위원장 김능오동지가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56(1967)년 8월 평안북도의 여러 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도가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조국과 혁명, 시대와 력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걸출한 정치가,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시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성군에 대한 현지지도에 이어 삭주군에 있는 풍년광산을 찾으시여 탐사사업을 잘하고 린회석을 많이 캐내어 농업생산에 이바지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관군안의 여러 단위들과 구성공작기계공장, 구성방직공장을 찾으시고 나아갈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도안의 여러 협동농장들에 령도의 자욱을 새기시며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높이는것과 함께 지대적특성에 맞는 부업경리를 짜고들며 농장들을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꾸릴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고 강조하였다.

정주옥종합상점(당시)에 들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때대에 우리가 생산한 상품을 가득 채워놓은것을 보시고 못내 만족해하시였으며 구성공작기계공장, 구성방직공장, 대관군가구공장을 찾으시여서는 자체의 힘과 기술로 능률높은 새로운 기계들과 질좋은 천, 쌀모있는 가구들을 많이 생산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력사적인 현지지도는 도안의 경제부문사업을 발전시키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로 되였다고 하면서 그는 지난 50년간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총정으로 받들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는 수풍발전소와 구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 락원기계련합기업소, 구성공작기계공장을 비롯한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이 굴함없는 공격정신과 결사관철의 기상으로 미제와 적대세력들의 전대미문의 제재압살책동을 무지비하게 쳐갈기며 만리마대진군을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신의주방직공장과 구성방직공장을 비롯한 경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이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것을 뼈에 새기고 증산투쟁, 물자투쟁, 창조투쟁을 줄기차게 벌려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질좋은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당과 수령, 사회주의조국을 쌀로써 받들어나갈 일념안고 과학농사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다수확운동을 힘있게 벌려 올해의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는 도안의 전체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조선혁명의 영원한 승리의 추동력인 일심단결을 천백배로 다지며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사회주의의 마지막 결승선을 향하여 총돌격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자력자강의 정신을 심어주어

명학탄광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탄부들이 석탄생산에서 자력자강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고있다.

얼마전 3갱 굴진소대에 들어간 초급당일군은 최근에 감행되고있는 적들의 무분별한 제재책동에 대하여 알려주면서 우리가 믿을것은 자강력이고 자력자강만이 살길이라는것을 탄부들의 심장마다에 다시한번 깊이 새겨주었다.

이에 고무된 탄부들은 원쑤들에 대한 적개심을 만장약하고 적들의 가슴팍에 맞구멍을 내는 심정으로 착암기를 돌려 그날 굴진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로농통신원 김명순

필승의 신념을 간직한 우리 인민의 혁명적풍모

오늘 우리 조국이 일심단결의 정치사상강국으로 위용떨치고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솟구쳐오른 경이적인 현실은 천만군민에게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길에 모든 승리와 영광이 있다는 신념을 백배해주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억척불변의 혁명신념과 필승의 기상을 안고 백두의 눈보라마냥 폭풍쳐 내달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으며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것입니다.》

필승의 신념은 혁명하는 인민들이 지녀야 할 중요한 사상정신적풍모이다.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그 승리의 필연성을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간직한 인민만이 그 어떤 광풍에도 끄떡없이 혁명의 한길을 끝까지 걸어갈수 있다.

혁명의 승리는 곧 혁명적신념의 승리이다. 이것은 장구한 우리 혁명력사를 통하여 확증된 철리이다. 필승의 신념을 간직한 항일혁명선렬들은 20성상 백두의 설한풍을 헤치며 《아시아의 병주》로 자처하던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였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보병총과 원자탄의 대결이라고 할수 있는 조국해방전쟁에서 세계《최강》을 떠벌이던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을 타승하고 영웅조선의 전승신화를 창조하였다. 지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우리 인민은 남들같으면 얼때먼도 주저앉을 엄혹한 시련속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튼튼한 도약대를 마련하였다. 우리 혁명의 백승의 력사는 혁명적신념이야말로 정녕한 사람들도 불굴의 투사로 만드는 사상적정신적원천이며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고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라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오늘 새로운 주체100년대진군길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신념은 더욱 굳건해지고있다.

우리 인민의 필승의 신념은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에서 뚜렷이 과시되고있다.

혁명은 수령의 위업이며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해나가는 과정이다. 수령의 사상과 로선은 과학이고 진리이며 수령이 가리키는 길은 곧 승리와 영광의 길이라는 확고부동한 믿음에 기초하고있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이 지닌 혁명적신념이다.

령도자에 대한 우리 인민의 믿음은 그 어떤 의무감이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정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것이다. 바로 이런 믿음을 초석으로 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천만군민의 혁명적신념이 그처럼 억세고 굳건한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는 비범한 예지와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세기적인 변혁과 기적을 창조해나가시는 절출한 령도자, 절세의 애국자이시다. 온 나라에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불길을 지펴주시고 전민총돌격전의 진두에 서시여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새 력사를 펼쳐가시는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경제건설과 혁명력건설병진로선을 제시하시고 대륙간탄도로케트《화성-14》형개발집단의 총설계가, 총제작자가 되시여 깊은 밤, 이른새벽에도 위험천만한 시험장소들과 조립현장, 포연자욱한 발사장들을 찾고찾으시며 천만로고를 다 바쳐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면불휴의 령도에 의하여 주체조선의 국력과 전략적지위는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게 되였다. 열화와 같은 사랑으로 인민들의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없이 숭고한 인민적풍모는 천만군민의 심장을 뜨겁게 격동시키고있으며 대를 이어 위대한 수령을 높이 모신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이고 배짱이다. 당중앙의 뜨락에 심장의 피줄을 잇고 하늘이 천만번 무너진대도 당과 운명을 끝까지 함께 하려는 천만군민의 불타는 맹세는 차디찬 바다물속에도 서슴없이 뛰여들어 일장의 환호를 올리는 감동적인 화폭에도 비껴있으며 엄혹한 대자연의 광란을 짓부시고 쌓아올린 기념비적창조물들과 대고조격전장마다에서 높이 울리는 노래 《우리의 신념》과 같은 시대의 진군가들에도 어려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절대불변의 신뢰심을 지니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노도와 같이 전진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앞길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지 못할것이다.

우리 인민의 필승의 신념은 매일에 대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 사회주의제도를 지키고 끝없이 빛내여나가고있는데서 표현되고있다.

혁명은 미래를 위한 투쟁이다. 혁명적락관주의정신, 미래를 사랑하는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한 사람만이 모진 고난과 시련도 웃으며 헤쳐나갈수 있으며 사회주의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울수 있다.

눈은 현실을 보지만 신념은 미래를 본다. 지금 우리 국가력무력의 질량적강화에 겁을 먹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기 위해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제재결의》라는것을 또다시 조작해내고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있다.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걸고 정상적인 무역활동과 정체교류까지 전면차단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완전히 가로막아 우리를 고립질식시키고 인민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된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허물어보려는것이 미제의 흉심이다. 적들의 이러한 책동은 우리 인민을 결코 놀래울수도 굴복시킬수도 없다. 이것은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필승의 신념을 더욱 굳게 해주고 보복의지만을 더해줄뿐이다.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의 생명이고 생활이다. 사회주의의 귀중함을 그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절감했기에 우리 인민은 자기자신의 운명과 사회주의의 운명을 순간도 떼여놓고 생각해본적이 없으며 사회주의를 지키고 빛내여나가는데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있다. 위대한 명장의 손길아래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자라난 인민군장병들은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는 혁명적각오를 지니고 조국의 전리방선을 철벽으로 지켜가고있으며 경제강국건설에서도 기적과 위훈의 창조자로 영예를 떨치고있다. 우리의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인민들은 역년 드높지 않을 불굴의 신념과 사생결단의 각오를 가지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웃으며 뚫고 나가고있으며 새 세대 청년들이 조국보위초소와 당이 부르는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탄원하고있다. 누가 최후에 웃는가를 보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이것이 자기가 선택한 길을 끝까지 가려는 우리 천만군민의 억척불변의 신념이고 배짱이다.

우리 인민의 필승의 신념은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당의 사상과 로선을 결사관철해나가는데서 남김없이 발휘되고있다.

신념이 혁명가의 생명이라면 자강력은 혁명의 승리적전진의 원동력이다. 제힘을 굳게 믿고 자력으로 자기의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신념의 강자들에게는 전명못할 요새도, 뚫지 못할 난관도 없다.

자력자강의 길은 바란다고 하여 누구나 갈수 있는 탄탄대로가 아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엄혹한 시련도 있을수 있고 때로는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최악의 역경도 있을수 있다. 자기 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애로와 난관앞에 쉽게 동요하게 되고 결국에는 혁명을 망쳐먹는 결과를 가져온다. 오직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해나갈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불가능도 가능으로 전환시켜나갈수 있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신념의 구호, 투쟁의 구호를 높이 들고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불굴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나가고있다. 지난해에 200일전투의 주타격방향을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투에로 전환시킴에 대한 당중앙의 전투적호소를 받아안은 천만군민은 당의 결심은 곧 실천이라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결사전을 벌려 두달 남짓한 기간에 사회주의선경거리, 선경마을을 일떠세우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적들의 전대미문의 초강경제재와 봉쇄책동속에서도 로동당시대의 선경으로, 현대건축거리의 본보기, 표준으로 훌륭히 완공된 려명거리는 우리가 일단 마음먹은것은 다 할수 있으며 우리의 전진은 그 누구도 가로막지 못한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특히 우리의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결사대 앞으로!》의 구호를 심장에 새기고 자체의 힘과 기술로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에서 련속 성공함으로써 당이 제시한 전투적과업을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바라는 높이에서 완전무결하게 집행하는 결사관철의 기풍을 높이 발휘하였다. 누구나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처럼 자기의 힘을 굳게 믿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살며 투쟁해나갈 때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이룩되게 될것이다.

신념이 강한 인민은 언제나 승리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 혁명승리에 대한 신념을 깊이 간직하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야 할것이다.

박사 부교수 우향숙

날강도 미제를 죽탕쳐버릴 일념으로 온 나라가 끓어번진다

미제의 반공화국제재압박과 군사적도발책동을 전민총결사전으로 단호히 짓뭉개버리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집회 각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대학들에서 진행

【평양 8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혁명의 영원한 승리의 추동력인 일심단결을 천백배로 다지며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미제와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제재압박과 군사적도발책동을 전민총결사전으로 짓뭉개버리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갈 우리 인민의 필승의 기상이 온 나라에 차넘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집회들이 각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대학들에서 진행되였다.

집회들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이 랑독된데 이어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반공화국 《제재결의》를 단죄규탄하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은 세상에 둘도 없는 날강도무리인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 삼살재마냥 들끼부는 괴뢰역적패당에 대한 증오와 복수의 일념으로 심장의 피를 끓이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의 근원을 송두리채 들어낼 자위적핵억제력을 백배, 천배로 더욱 억세게 다져나가려는것이 우리 인민의 드팀없는 의지이며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면서 미국과 그 하수인들이 조작해낸 《제재결의》를 전면배격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였다.

미국의 군부호전광들은 세기를 이어 다지고다져온 무진막강한 백두산혁명강군의 군사적위력으로 분멸을 잃은 히스테리적인 전쟁광기를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릴것이라고 엄숙히 천명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성명과 조선인민군 전략군 대변인성명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연설자들은 승리는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정의와 진리의 무진막강한 힘을 지닌 우리 공화국과 인민의것이라고 하면서 인민군대와 한전호에서 싸우는 심정으로 당의 병진로선을 높이 받들고 자강력제일주의기치높이 만리마대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갈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원산청년발전소 종업원집회에서 연설자들은 강원도정신창조자답게 적들의 포악한 제재봉쇄와 압살책동을 전력증산의 동음으로 산산이 짓부시며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만리마대진군에서 날에날마다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문천금강제련소, 단천제련소에서 진행된 종업원집회들에서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제재압박소동을 증산투쟁, 창조투쟁, 돌격투쟁으로 여지없이 짓뭉개버릴 억척불변의 의지가 피력되였다.

미제의 가증되는 제재책동과 군사적도발망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경제강국건설과 자위적국방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이바지해갈 신념의 목소리들이 평양자동화기구공장, 안주질연물공장 종업원집회들에서 힘차게 울려나왔다.

박천건직공장, 선교편직공장 종업원집회들에서 연설자들은 자력갱생의 기치를 들고 사회주의의 마지막결승선을 향하여 총돌격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따라 일터마다에서 생산적앙양을 일으킴으로써 올해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안악군 대추협동농장, 곡산군 덕흥협동농장 농업근로자들의 집회들에서 연설자들은 한알한알의 쌀은 곧 한발한발의 총포탄이라는것을 항상 명심하고 전화의 애국농민들의 투쟁정신으로 다수확운동을 힘있게 벌려 적들의 가소로운 제재책동에 통구멍을 낼것이라고 말하였다.

미제의 그 무슨 《제재결의》따위의 위협이 우리에게는 절대로 통할수 없다고 하면서 강계오리공장, 홍주닭공장 종업원들도 집회들을 열고 고기와 알생산에서 비약적인 혁신을 일으켜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 결의를 다짐하였다.

김형직사범대학, 청진공업기술대학에서 진행된 집회들에서 연설자들은 우리의 생존권을 빼앗으려는 간악한 원쑤들과 최후결산을 할 때는 왔다고 하면서 미제가 이 땅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모든 학생들이 1950년대의 영웅전사들처럼 조국보위성전에 용약 떨쳐나 선군시대 청년전위의 멸적의 기상을 남김없이 과시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개성영예군인의료기구공장, 정주예방약공장의 종업원들도 대를 이어 승리만을 아로새겨온 전세대들의 투쟁정신을 본받아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세차게 울림으로써 인민들이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속에서 행복한 삶을 마음껏 누리게 하는데 이바지해갈 맹세안고 집회들을 가지였다.

전체 집회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백전백승의 령도따라 반제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반드시 이룩하고야 말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었다.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평양출판인쇄종합대학에서—

멸적의 기상

성진제강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투쟁

성진제강련합기업소 주체철생산현장이 불의 대하로 화하였다.

극악무도한 제재책동에 매달리다 못해 전쟁광증까지 부리는 미제깡패무리들의 정수리에 주체의 불벼락을 들씌우자, 우리의 생존권을 말살하려고 미쳐날뛰는 미제와 총결산할 때는 왔다.

미제에 대한 치솟는 증오와 분노로 심장의 피를 펄펄 끓이며 2배, 3배의 실적을 올리기 위한 증산투쟁이 벌어지고있는 5월17일공장 주체철생산현장은 미제와의 관가리결전장인듯싶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힘을 믿고 미래에 대한 신심과 백관에 넘쳐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승리자의 대회로 빛내일 열의에 넘쳐 주체철생산에서 앙양을 일으켜나가고있는 성강로동계급의 심장마다에 증오의 용암이 끓고있다.

년대와 세기를 이어 끊임없이 감행되고있는 미제의 야만적인 제재압살책동속에서도 주체의 불을 쏟아내고 또 쏟아낸 성강로동계급이 미제와 총결산할 심정으로 최전로의 동음을 힘있게 울려가고있다.

하루 주체철생산 계획보다 평균 1.5배!

정신이 번쩍 드는 혁신의 새소식들이 교대, 작업반, 직장마다에서 련이어 전해지고있다.

최후승리를 향하여 질풍노도처 전진하는 조선로동계급의 발걸음을 멈춰세워보려고 날뛰는 미제를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을 단호히 징벌하는데서 성강로동계급이 앞장에 서자, 이런 불같은 목소리를 터치며 누구나 스스로 전투목표를 높이 내세우고 증산투쟁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련합기업소일군들이 만점을 지고 대오의 앞장에서 내달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혁명은 하늘이 주는 신비한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편단심 당을 따르고 옹위하는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을 비롯한 우리 인민의 위대한 힘에 떠받들려 전진합니다.》

지난 6월 17일까지 상반년 인민경제계획을 111.1%로 완수한 기관차대의 전체 전투원들은 7월에도 기관차실동기대수보장계획을 127.5%로, 철 수송계획을 102.6%로 넘쳐 수행하고 8월에 들어와 진군속도를 더욱 높이고있다.

대에서는 화물수송계획을 넘쳐 수행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짜고들어 일평균수송계획을 120%로 수행하고있다.

특대사변들을 련이어 안아온 국방과학전사들처럼 최후승리를 앞당기는 결사대원이 되자고 호소하는 일군들의 정치사업은 대중의 투쟁열의를 천백배로 고조시키고있다.

새로운 로조업방법을 도입하여 주체철증산의 돌파구를 힘있게 열어제낀 5월17일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공정간 맞물림을 과학적으로 짜고들고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가며 날마다 주체철생산성과를 확대하고있다.

12일, 주체철직장 최전로 2작업반 용해공들은 계획보다 주체철을 45t이나 증산하는 혁혁한 위훈을 세웠다. 출선의 기쁨에 넘쳐있는 용해공들에게 작업반장 리철호동무의 목소리는 얼마나 뜨겁게 울렸는가.

《동무들, 우리의 강철이 있어 조국의 승리가 앞당겨짐을 명심하고 더욱 분발하여 교대당 4차지, 5차지까지 쇠물을 쏟아냅시다!》

《옳습니다. 우리야 성강의 강철전사들이 아닙니까.》

교대당 하루 2차지에서 3차지, 4차지, 5차지에로!

최전로2작업반의 뒤를 따라 기준을 더 높이 세우고 맹렬한 증산돌격전을 벌린 성강로동계급은 18일에 월 주체철생산계획을 완수하는 빛나는 위훈을 떨쳤다.

이 나날에 예견치 않았던 정황이 제기될 때마다 한몸을 내대여 불량개소를 퇴치하고 최전로의 숨결을 지킨 용해공, 수리공들도 있다. 설비보수기일을 줄이기 위하여 밤이 깊도록 용접의 불보라를 날린 보수직장 로동자들의 심장속에서 무엇이 끓고있는지 우리 물어서 알랴.

원쑤격멸의 용암이 분화구를 찾는 북방의 철의 기지.

오늘도 성강로동계급은 미제와 총결산할 멸적의 의지를 안고 용해시간을 단축하며 주체철의 출선회수를 늘여가고있다.

우리 당을 강철로 결사옹위해가는 성강로동계급이 적들의 극악한 제재책동속에서도 줄기차게 쏟아내는 주체철은 섬멸의 불벼락이 되여 미제의 최후멸망을 선고하고있다.

본사기자 리철옥

현지보도

비약의 숨결드높은 전투장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조강직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5개년전략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민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려야 합니다.》

여기는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조강직장이다.

지금 이곳에서는 황철의 로동계급이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제재와 도발책동을 자력자강의 무쇠마치로 짓부셔버릴 복수의 열기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해산-삼지연철길건설장에 보내줄 종량레루생산전투로 분분초초를 이어가고있다.

드넓은 생산현장의 한편에 주련이 세워진 붉은기와 속보판들, 천정기중기와 건물기둥에 나붙은 글발들이 우리의 눈길을 끈다.

《결사관철》,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종량레루가 생산되는 모습은 볼수록 장관이다. 현장한끝에 있는 가열로에서 엄펏 보기에도 1t이상은 실히 될 시뻘건 강편이 미끄러지기 바쁘게 강편이송장치에 의해 압연롤로 이동한다. 운전공 김충성동무의 능란한 조종에 의해 압연기가 순식간에 강편소재를 덥석 물더니 반대방향으로 보기 좋게 밀어낸다. 첫 단계인 누름압연공정을 거치며 처음보다 훨씬 길어진 강편이 다음공정인 조연압연공정으로 이동한다.

현장의 곳곳에 배치된 조종실마다에서 리용남, 리철훈동무를 비롯한 조연운전공들이 서로의 호흡을 맞추며 대형설비들을 능숙하게 조종한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도 조종간을 억세게 틀어잡고 적진으로 돌진하는 땅크병들을 방불케 한다.

미더운 조연운전공들에 의해 육중한 강편이 조연압연공정들을 련속적으로 통과한다. 그뒤로 또다시 들이닥치는 강편들…

불과 몇분사이에 가열로에서 나온 강편이 처음보다 10배이상 늘어나 레루모양으로 일정하게 갖추어진다. 그야말로 만리마시대의 분분초초가 격동속에 흐르는 전투장이다.

누름, 조연, 완성압연공정들을 거치면서 완전한 모양을 갖춘 종량레루가 절단공정을 통과하는 모습도 장관이다.

종량레루소재가 이송롤로를 따라 절단공정에 이르기 바쁘게 김영순동무가 조종하는 톱날모양의 거단기에 의해 레루량끝은 표준규격대로 순식간에 절단된다.

무수한 불꽃이 튕기며 순식간에 레루가 절단되는 광경에 심취된 우리에게 직장장 차능도동무는 말한다.

《주체의 혁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영웅적로동계급답게 교대별, 시간별로 집단적혁신을 창조하는 우리 직장전투원들의 기세는 지금 비상히 앙양되여있습니다.》

전면, 후면조종실사이를 빠른 속도로 오가며 자기 자태를 드러내는 레루는 당정책결사관철전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이곳 로동계급의 충정의 마음과 제국주의자들의 제재책동에 과렬구를 내며 억세게 전진하는 사회주의조선의 기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마감처리공정에 이르러 한편으로 밀려나 척척 쌓여지는 종량레루들,

불과 몇분만에 20여m나 되는 종량레루를 손색없이 밀어내는 조종공들이 참으로 돋보인다.

가열, 압연, 절단의 매 공정마다 로동자들의 충정의 마음들이 하나로 합쳐져 아직도 붉게 달아있는 종량레루들이 마지막처리공정에 가닿는 속에 전투장에 흐뭇한 소식이 전해진다.

《오늘 1교대에 종량레루생산 최고기록 돌파!》

절단된 종량레루들이 처리공정을 거쳐 기중기운전공 최명철동무의 능란한 조작에 의해 화차우에 련이어 규모있게 쌓인다.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군으로 향한 우리 인민모두의 뜨거운 마음도 함께 싣고서.

강철로 우리 당을 억세게 받들어가는 황철로동계급의 기상인양 화차마다에 가득 실린 레루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앞에 두줄기 레도를 따라 쾌속으로 달리는 삼지연행렬차의 모습이 방불하게 그려진다.

홍성준

원쑤격멸의 지축안고

평양기관차대에서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미국의 정치경제적압박과 군사적위협을 전면배격하고 강력한 우리 식의 선제타격을 천명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성명을 높뛰는 가슴마다에 받아안은 평양기관차대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이 적들의 무분별한 제재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증송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혁명은 하늘이 주는 신비한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편단심 당을 따르고 옹위하는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을 비롯한 우리 인민의 위대한 힘에 떠받들려 전진합니다.》

지난 6월 17일까지 상반년 인민경제계획을 111.1%로 완수한 기관차대의 전체 전투원들은 7월에도 기관차실동기대수보장계획을 127.5%로, 철 수송계획을 102.6%로 넘쳐 수행하고 8월에 들어와 진군속도를 더욱 높이고있다.

대에서는 화물수송계획을 넘쳐 수행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짜고들어 일평균수송계획을 120%로 수행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월간 기관차수리계획을 훨씬 초과수행할 목표를 세우고 기적과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며 총공격전을 벌리고있다.

당조직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꾸며낸 전대미문의 반공화국 《제재결의》를 자력자강의 위대한 정신력으로 짓뭉개버리기 위한 선전선동과 교양사업을 화선식으로 진행해나가고있다.

그 누구도 우리가 강해지는것을 바라지 않으며 믿을것은 오직 자기의 힘뿐이라는 각오와 필승의 신심을 안고 살며 투쟁하도록 하는데 모든 박고 조직정치사업을 집중적으로 벌려나가고있다.

일군들부터가 앞세를 메고 생산현장에 들어가 걸린 문제를 대중의 창조적지혜와 열의를 불러일으켜 풀어나감으로써 그들의 혁명열, 투쟁열을 더욱 북돋아주고있다.

대의 전체 수송전사들은 년간계획을 10월 8일전으로 앞당겨 수행할 불타는 열의를 안고 하루하루를 불꽃튀는 전투로 이어나가고있다.

이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두리에 굳게 뭉쳐 승리와 영광만을 아로새긴 전세대들처럼 기적과 위훈을 떨쳐갈 일념으로 자신들의 심장을 불태우고있다.

특히 운전대대의 기관사들은 싸우는 고지에 한약을 나르는 심정으로 5.18무사고정시전인 초과운동을 활발히 벌리며 수송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가고있다.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의 불길높이 말겨진 년간 물동수송계획을 넘쳐 수행한 책임기관사 리수영, 박기철, 기관사 김영호동무들은 자검자수, 자전소운전, 전인초과운동을 그 어느때보다 힘있게 벌리며 증송의 기적소리를 더욱 높이 울리고있다.

수리중대의 전투원들도 적들의 극악한 제재책동을 자력자강의 무쇠마치로 쳐갈기며 맡은 일에서 책임성과 역할을 다해나가고있다.

중대장 한일룡동무는 지난 시기의 낡은 수리방법을 타파하고 수리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한 작업조직과 지휘를 능동적으로, 전투적으로 해나가고있다. 중대원들모두를 1950년대의 수송전사들처럼 살며 싸우도록 불타올리게 하는 한편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 매일 기관차수리계획을 140%이상으로 넘쳐 수행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이에 발맞추어 증수리작업반 수리공 륙상남, 로석룡, 김태영동무들은 내연기관차 740호에 대한 수리를 공정시간보다 12시간이나 앞당겨 끝내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많은 물동을 싣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과 중요건설장들로 쉬임없이 떠나는 기관차들의 기적소리는 전투원들의 멸적의 기상인양 매일, 매 시각 기운차게 울리고있다.

기관차대의 로동계급은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기상과 본때로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려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제재결의》를 짓부시고 날강도 미제를 죽탕쳐버릴 결의드높이 만리마진군속도로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본사기자 전혜영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증산의 돌파구를

순천화력발전소에서

최근년간 해마다 전력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순천화력발전소에서 올해에 들어와서도 매달 많은 전력을 증산하여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로 들끓고있는 사회주의대격전장들에 보내주고있다.

이러한 성과는 과학기술을 보검으로 틀어쥐고 전력증산의 믿음직한 담보를 마련해나가는 이곳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계급의 창조적투쟁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력공업부문에서 발전소들의 불비한 생산공정과 시설들을 정비보강하고 기술개건을 다그쳐 발전설비의 효률을 높이고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며 전력생산원가를 체계적으로 낮추어야 합니다.》

발전소에서는 올해에도 전력생산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근본방도를 과학기술에서 찾고 생산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풀어나가고있다.

특히 모든 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이 전력생산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수 있는 한건이상의 기술혁신과제를 무조건 수행하는것을 의무화하였다. 그리고 그에 대한 총화평가사업을 짜고드는것과 함께 기술자, 기능공들의 사업조건, 생활조건을 잘 보장해주는 사업에 큰 힘을 돌이고있다.

3대혁명소조원들이 새 세기 산업혁명의 척후병, 기수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전력증산의 기본방도를 운영호기를 늘이는데서 찾은 발전소 일군들은 지난해 타빈속을 비롯한 주요부속품들을 재생하여 대보수를 끝낸 4호발전기의 정상가동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혁신에로 기술자, 기능공들의 집체적지혜를 지향시켜나갔다.

서로의 지혜와 운영경험을 살려 넉달동안 4호발전기의 시운전을 진행하는 과정에 발전기가 동상태의 안정성을 최종적으로 확증한 이들은 지난 4월 14일부터 4호발전기운영을 보장함으로써 전력증산의 커다란 예비를 조성하였다.

또한 발전소의 일군들은 기술자, 로동자들과의 집체적토의를 거듭하는 과정에 실리에 맞는 공기예열기들의 개조방안을 탐구도입하도록 하였다.

그에 기초하여 3호발전기의 공기예열기들을 합리적으로 개조함으로써 한 호기에서만도 순시로 1 000여kW의 전력을 더 생산할수 있게 되였다. 지난 7월 4호발전기대보수기간에 4호보이라의 공기예열기들도 성과적으로 개조하여 전력증산을 위한 또 하나의 믿음직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보이라들에 점화띠를 새롭게 설치하여 이전보다 연소효률을 0.5% 올리고 많은 석탄을 절약할수 있게 된것도 자체의 기술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창조적지혜를 적극 발동시킨 결과이다.

기술발전과 과장 최충렬동무와 부원 량의남동무를 비롯한 발전소의 기술자, 로동자들과 3대혁명소조원들은 능력이 큰 보온자재생산공정을 자체의 힘으로 꾸려놓아 많은 연유를 절약하면서도 질좋은 자재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석두흥, 함희준동무를 비롯한 발전소의 책임일군들은 기술자들과 오랜 기능공들의 창의창발성을 불러일으켰다.

그리하여 지난 시기 많은 자재와 로력이 드는것으로 하여 엄두조차 내지 못하던 탈염수회수체계를 새롭게 확립함으로써 많은 화학시약과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전력생산원가를 낮출수 있게 하였다.

생산부기사장 천일석동무가 착상한 고압전동기들의 연기동방법과 3대혁명소조원 김학문동무와 기술발전과 김기전동무가 창안도입한 저압전동기보호장치들도 전력증산에서 큰 은을 나타내고있다.

일군들은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실속있게 짜고들어 생산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원만히 풀어나가도록 하였다.

또한 교대점검과 업간점검을 책임적으로 하며 설비관리에서 표준조작법과 기술규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장악통제사업을 강화하여 발전기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도록 하고있다.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발전소에서는 8월에 들어와 2호발전기의 대보수기간에 공기예열기들을 원상복구할 대담한 목표를 또다시 내세우고 필요한 장치와 각종 기공구들도 자체의 힘으로 생산보장하고있다.

이곳 발전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포악한 제재압박과 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릴 드높은 열의안고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하여 계속전진, 계속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최영조

자력자강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동평양화력발전소에서—

본사기자 찍음

하나를 건설해도 당의 인민사랑이 뜨겁게 가닿도록

후대사랑의 숭고한 뜻 높이 받들어

자 강 도 에 서

우리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떠받들려 강계시의 풍치수려한 장자산기슭에 소년단야영소가 세상이 보란듯이 일떠서고있다.

5만여㎡의 부지면적에 일떠서는 장자산소년단야영소는 야영1각과 2각, 식당을 련결하는 외랑으로 설계되여있는데 텔레비죤시청실과 전자오락실, 한증관이 달린 목욕탕, 리발실, 치료실, 휴게실이 꾸려지게 된다. 또한 무대와 관람석, 성악실, 기악실, 무용실 등을 갖춘 회관과 오락회장, 민속놀이장, 휴식터도 건설되게 된다.

미제를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걸고들며 제멋대로 조작해낸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제재결의》를 전면배격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에 접한 도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 건설자들은 끓어오르는 적개심을 안고 공사속도를 부쩍 높여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대원수님들의 뜨거운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정히 받들어 대원수님들께서 그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던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하며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어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공화국정부성명에 접하고 장자산의 풍치수려한 곳에 일떠서고있는 소년단야영소를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창조물로 더 빨리 일떠세우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고 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해당 부문 일군들은 자력자강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자재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면서 소년단야영소건설을 다그쳐 끝내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치밀하게 해나가고있다.

현장지휘부의 일군들은 우리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숭고한 뜻을 하루빨리 현실로 꽃피울 열의를 안고 야영소건설을 앞당겨 끝내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해나가고있다.

건설에 참가한 도청년돌격대원들과 시, 군돌격대의 전투원들은 미제와 적대세력들이 아무리 비렬하게 날뛰여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석의 신념을 간직하고 부닥치는 난관을 과감히 맞받아나가면서 치렬한 돌격전을 들이대고있다. 야영1각건설을 맡은 도청년돌격대 1대대와 시, 군돌격대의 희천시중대, 전천군중대, 시중군중대의 돌격대원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치렬한 전투를 벌려 짧은 기간에 기초굴착과 콩크리트치기, 벽체쌓기와 지붕공사를 불이 번쩍 나게 끝낸 기세로 마감공사를 본때있게 다그치고있다.

이들은 미제와 적대세력들의 그 어떤 제재에도 끄떡없이 할 일은 다한다는 든든한 배심을 지니고 내부공사와 바닥돌깔기 등 마감공사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야영2각건설을 맡은 만포시, 송원군, 동신군중대의 돌격대원들은 서로의 지혜를 합쳐가며 공사속도와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다.

희관건설을 맡은 도청년돌격대 4대대와 장강, 위원, 성간, 자성군중대의 돌격대원들은 야영의 나날 마음껏 노래부르며 행복을 누릴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그려보며 모든 소조실들의 방들과 조명실, 무대 등을 최상의 수준에서 꾸려가고있다.

식당건설을 맡은 고풍, 화평군중대의 돌격대원들은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에 겁을 먹고 짖어대는 미제와 적대세력들이 보란듯이 식사실들에 대한 천정불장식과 벽장식을 다그치면서 주방칸, 료리실습실, 휴게실 등에 대한 타일붙이기와 돌붙이기를 솜씨있게 해나가고있다. 도청년동맹위원회 돌격대원들과 고풍군에서 달려나온 녀맹돌격대원들도 힘과 지혜를 합쳐가고있다.

자력자강만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며 승리하는 길이라는 철의 신념을 간직하고 떨쳐나선 일군들과 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장자산소년단야영소완공의 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특파기자 김 순 홍

양로원건설 힘있게 추진

평 안 북 도 에 서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높이 받들고 평안북도에서 도양로원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도에서는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지금까지 도양로원건설을 내밀어 총공사량의 75%를 해제낀 기세드높이 련속공격전을 줄기차게 벌려나가고 있다.

연건평이 수천㎡에 달하는 조선식으로 설계된 도양로원은 수십개의 침실과 운동실, 오락실, 주방칸과 식사실, 치료실과 입원실, 편의봉사시설, 회의실과 연혁소개실 등을 갖춘 현대적인 건물로 일떠서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과 국가기관들은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를 구현하여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절대시하며 인민들의 정치적생명과 물질문화생활을 책임지고 끝까지 돌봐주어야 합니다.》

인민들에게 더 좋은 생활조건을 마련해줄데 대한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도당위원회에서는 지난해에 도양로원을 현대적으로 건설할 목표를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인민위원회에서는 의주군 대산리지구의 명당자리에 도양로원터전을 잡고 로력조직과 자재보장을 앞세우면서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도인민위원회 책임일군인 정경일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도양로원건설을 당에서 바라는 높이에서 최상의 수준으로 훌륭하게 건설하기 위하여 많은 량의 세멘트와 물재, 강재 등 건설자재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었다.

이와 함께 공사에 필요한 굴착기와 설비 등을 제때에 보내주고 후방사업에 힘을 넣으면서 건설자들을 적극 불러일으켰다.

현장지휘부에서는 모든 시공단위들에서 맡은 공사과제를 매일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요구성을 높이면서 공사를 줄기차게 밀고나갔다.

의주군, 피현군, 동창군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달려온 건설자들은 치렬한 전투를 벌려 짧은 기간에 방대한 토량을 처리하면서 지대정리와 기초굴착공사를 다그쳤다.

건설자들은 기초콩크리트치기를 짧은 기간에 끝낸 기세드높이 벽체축조공사에 진입하여 공사를 불이 번쩍 나게 다그쳤다.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변모되는 전투장에는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현장지휘부의 일군들은 올해에 들어와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지붕공사와 보조건물공사, 도로공사, 암키공사 등 방대한 공사과제를 통이 크게 내밀고있다.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합리적인 공법들을 받아들여 공사속도를 높이고있다. 그들은 서까래 등을 앞질러 보장하면서 지붕공사를 짧은 기간에 완성하기 위한 전투를 치렬하게 벌리고있다.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공사가 마감단계에 이른데 맞게 외부미장과 창문틀설치, 가구제작, 기와생산을 립체적으로 밀고나가면서 도양로원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엄청화동무를 비롯한 도인민위원회일군들은 맡은 부속건물공사를 다그치고있으며 후방물자를 성의껏 마련하여 건설자들에게 안겨주면서 그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있다.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도양로원을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하기 위하여 한집같이 떨쳐나선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성과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특파기자 송 창 윤

현대적인 체육관이 일떠선다

황 해 북 도 에 서

미국이 조작한 반공화국《제재결의》를 우리의 자주권에 대한 란폭한 침해로 준렬히 단죄규탄하며 전면배격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에 접한 황해북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원쑤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안고 종합체육관건설에서 련일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교육과 보건, 체육, 문화예술을 비롯한 문화분야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일으켜 문명강국건설을 앞당겨야 하겠습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도체육촌의 규모에 맞는 현대적인 종합체육관을 자체의 힘으로 건설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림명철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체육관건설을 빠른 기일안에 끝내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패기있게 해나가고 있다.

도대외건설사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미제와 적대세력들의 비렬한 제재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는 심정으로 치렬한 돌격전을 벌리고있다. 그들은 합리적인 공법들을 받아들여 공사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하고있다. 골조조립을 맡은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새로운 휘틀을 제작하여 공사에 리용함으로써 콩크리트치기속도를 부쩍 끌어올리고있다. 특히 건설8직장과 건설2직장, 건설6직장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선진적인 공법을 받아들여 무게조립과 층막콩크리트치기를 립체적으로 벌려 공사속도를 2.5배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도당책임일군을 비롯한 도당위원회일군들은 공사장에 수시로 나와 걸린 문제들을 알아보고 강재와 세멘트 등 자재보장을 위한 대책을 적극 세워주고있다.

일군들과 인민들은 많은 과철을 모아 사리원강철공장과 경암금속공장에 보내주어 공사에 필요한 강재를 자체의 힘으로 보장해나가고있다.

시안의 녀맹원들도 체육관건설을 힘있게 지원하고 있다.

날로 악랄해지고있는 미제와 적대세력들의 제재압살책동을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단호히 짓부셔버릴 기세로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체육관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특파기자 신 경 섭

생물활성복사체를 적극 리용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앞선 영농방법과 기술을 널리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 우리에게 이제 쌀만 있으면 두려울것이 없다. 이런 배심을 가지고 구장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이삭의 여문률을 높이고 천알질량을 늘이는데 중심을 두고 일해나가고있다. 주목되는것은 생물활성복사체를 리용하여 생육후반기비배관리를 짜고들고있는것이다.

무엇때문인가.

강냉이 정보당 수확고는 풍알이 드는 시기에 잎의 영양상태에 크게 관계된다. 이삭이 여물 때까지 잎이 푸르러있어야 빛합성능력이 높아지고 이삭에 영양물질이 충분히 축적되여 천알질량을 늘일수 있다. 이로부터 군일군들은 강냉이잎의 영양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예견성있게 작전하고 근기있게 내밀도록 하였다.

여기서 중시한것이 생육후반기에도 생물활성복사체를 리용하는 문제였다. 이들은 잎에 뇨소비료를 그대로 주지 않고 생물활성복사체로 처리한 물로 2%의 뇨소액을 만들어주도록 하였다. 많은 량의 영양물질을 요구하는 이 시기에 보다 높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였다.

타당성이 있었다. 올해 군일군들은 과학농사열풍을 일으키고 다수확운동을 힘있게 벌림에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생육전반기비배관리시기에 생물활성복사체를 리용해보았다. 일부 포전들에서 이 복사체로 처리한 물에 일정한 비률로 발효퇴비와 뇨소비료를 풀어 강냉이고랑이에 주고 잎덧비료주기도 여러차례 진행하였다.

결과는 좋았다. 비료효과가 뚜렷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난것이다. 군안의 여러 농장들에서 리용해본데 의하면 리용하지 않은 포전에 비해 잎의 색갈이 진하고 대도 굵어졌다. 잎마름병을 비롯한 병발생률도 지난 시기에 비해 훨씬 낮아졌다.

그것은 이 복사체로 처리한 물을 뇨소비료의 용매제로 리용하면 비료흡수률이 높아지고 농작물의 성장을 촉진시켜주기때문이다. 이 사실을 놓고 군일군들은 농업생산의 과학화수준을 높일데 대한 우리 당 정책이 얼마나 정당한가 하는것을 다시금 새겨안았다.

군일군들은 생물활성복사체를 리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시켜나갔다.

우선 그 우월성을 생산자대중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었다.

군일군들은 보여주기사업에 작업반기술원들을 출연시켰다. 물론 지난 시기처럼 일군들이 출연할수도 있었다. 하지만 생물활성복사체를 리용하여 일덧비료주기를 진행해본 작업반기술원의 경험을 들어야 농업근로자들이 더 잘 리해할수 있기때문이었다. 이들은 대비사진을 통한 보여주기도 배합하여 진행하였다. 실효는 컸다.

군일군들은 생산자대중이 자기의것으로 받아들인데 맞게 조직사업을 면밀히 짜고들었다. 일군들이 농장들을 맡고 내려가 포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제때에 대책을 세워 앞선 영농방법과 기술이 온을 내도록 하였다.

짧은 기간에 진행하자니 로력이 긴장하였다. 물배기와 거름생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작업을 진행하면서 이처럼 알심있게 비배관리를 하자면 적지 않은 품을 들여야 하였다. 하지만 일군들은 가증스러운 원쑤들을 무자비하게 격멸소탕하는 심정으로 이 사업을 완강하게 내밀었다.

농업근로자들도 식량문제해결을 위한 투쟁은 곧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보위하기 위한 총포성없는 싸움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해나갔다.

앞선 영농방법과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품을 들인 보람으로 포전마다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더욱 높일수 있는 전망이 마련되고있다.

방 영 진

석탄생산의 앞장에서 로력적위훈을 떨쳐가고있는 혁신자들을 열렬히 축하해주고있다. —제남탄광에서— 본사기자 신 충 혁 찍음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천마광산 조약갱의 광부들이 년간 광물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를 늦추지 않고 계속 힘찬 생산돌격전을 벌리고있다.

김근철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올해에 광물생산목표를 높이 세우고 그 수행을 위한 투쟁에로 광부들을 불러일으키는 화선식정치사업을 드세게 벌리였다. 일군들은 갱막장에 들어가 걸린 문제들을 풀어주면서 앞채를 메고 돌파구를 열어나갔다. 특히 전망이 좋은 부흥사갱의 막장들에 력량을 집중하여 광물생산실적을 부쩍 올리기 위한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었다.

일군들은 진형단위를 창조하고 소대별, 중대별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힘있게 벌려 혁신이 창조되게 하였다.

갱의 모든 단위들이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적경쟁열풍이 세차게 몰아치는 속에 생산중대 7소대를 비롯한 11개의 소대들에서 년간 광물생산계획을 수행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이곳 일군들과 광부들은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더 높은 목표밑에 증산의 불길을 계속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로농통신원 강 성 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대표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리홍을 중앙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대표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대표단성원들은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령도로 우리 조국과 민족의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시었으며 재일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대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부대통령이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에 우리 나라와의 외교관계단절을 요구한것과 관련하여 19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최근 미국부대통령이 칠레를 행각하면서 브라질과 베네쥬, 칠레, 페루에 우리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할것을 요구하였다.

미국이 우리와 친선협조관계를 가지고있는 나라들에 외교 및 경제관계를 단절하라고 강박해나선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미국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 대고 우리와의 모든 관계를 전면차단하라고 내리먹이며 압력을 가하고있다.

이러한 강권행위는 온 세상을 희생시켜 제 리속을 차리려는 미국의 극단한 리기심과 오만성을 스스로 드러낸것이며 대조선적대시정책이 극도에 달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의 관계단절압박은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의 내정에 대한 란폭한 간섭이며 국제법과 국제질서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으로서 규탄과 배격을 면치 못하고 있다.

미국이 우리를 반대하여 감행하고있는 강도적인 제재압박책동을 묵인허용한다면 모든 나라들이 미국의 내정간섭행위의 피해자로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밑에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갈것이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부당하고 비법적인 반공화국제재압박소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존엄과 전략적지위를 고수하며 정정한 국제적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정정당당하고 책임적인 노력은 계속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대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유엔사무총장이 조선반도긴장격화의 원인이 마치 우리에게 있는듯이 여론을 오도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19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최근 유엔사무총장은 조선반도문제와 관련한 기자회견이라는데서 조선반도정세격화가 우리의 《핵 및 미싸일개발》로 인해 시작되였다는 망발을 늘어놓았다.

유엔사무총장의 이러한 발언은 조선반도핵문제의 본질에 대한 무지의 표현으로밖에 달리 볼수 없다.

명백히 하건대 조선반도핵문제가 발생하고 정세격화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근원은 모두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에 있다.

유엔사무총장이 조선반도정세를 최악의 폭발계선으로 몰아가고있는 미국에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조선반도문제해결을 위해 공정한 립장을 취하겠다고 하는것은 어불성설이다.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정세를 완화시키고 위험한 군사적충돌을 막자면 우리 주변에 수많은 핵전략장비들을 끌어다놓고 불집을 일으킨 미국이 먼저 옳바른 선택을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우리가 선택한 핵무력강화의 길에서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것이다.

【조선중앙통신】

당사상전선의 전초병—선군시대 모범강연강사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사상일군들의 어깨가 참 무겁습니다.》

우리 당사상전선의 전초병이 된 크나큰 영예를 안고 전투적이며 감화력있는 강연선전활동으로 대중을 만리마속도창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는 선군시대 모범강연강사들을 아래에 소개한다.

현실파악이 깊어야 한다

조선변호사회 황해북도 위원회 위원장 리철동무

같은 제강을 가지고 강연을 하는 경우에도 출연자에 따라 실효에서 차이가 나는것은 무엇때문인가.

제강의 내용을 소화한 정형, 정치실무적수준, 언변술…

그밖에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것이 있다.

그것은 출연자가 현실을 깊이 파악하고 강연에 잘 반영하는것이다.

얼마전 우리가 취재한 조선변호사회 황해북도위원회 위원장 리철동무의 지난 10여년간의 강연선전활동은 이 측면에서 주목을 끌고있다.

선군시대 모범강연강사의 영예를 지닌 오늘에는 추억깊이 회고하는 일이지만 도당직외강연강사로서의 걸음을 갓 떼던 시기 현실파악에 응당한 주의를 돌리지 못한 교훈이 그에게 있다.

그가 황해제철련합기업소 강철직장에서 철강재증산투쟁에로 추동하는 강연을 하고난 뒤였다.

강연에 대한 소감도 들어볼 겸 로동자들속에 들어갔던 리철동무는 스스로 얼굴이 뜨거워졌다.

정시에 그가 생각하였고 그래서 강연에서 언급하였던것과는 대비도 할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힘든 속에서 결사적인 투쟁이 벌어졌었고 사람들속에서 발휘된 감동적인 소행 또한 많았던것이다.

그것을 미리 알고 강연에 반영하였더라면 얼마나 큰 실효를 거두었을것인가.

제강을 뜬금으로 외울수 있게 통달하고 현장에 와서 강연을 하는것으로 만족해하였던 자신의 사업태도가 심각히 돌이켜졌다.

이때부터 리철동무는 강연에 앞서 단위실태, 현실을 깊이 파악하는것을 어길수 없는 철칙으로 삼았다.

황주군안의 협동농장들을 비롯하여 단위들에 나가 강연을 할 때마다 그는 그대로 실천하였다.

강연장소에 도착하면 먼저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그 단위의 전반실태와 사람들의 심리를 깊이 파악하였다.

그렇게 얻은 생동한 자료들을 안받침하여 강연을 하니 확실히 달라졌다.

실효가 높았던것이다.

례성강청년1호, 2호, 3호, 4호, 5호발전소건설장들과 도육아원, 애육원, 사리원초등학원건설장 등 그가 지난 10여년간 화선식강연선전활동을 맹렬하게 벌린 수많은 곳들에서 《벅찬 현실의 맥박이 느껴지는 산 강연》이라는 평가를 받은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지난해 10월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 이어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 달려가 화선식강연선전활동을 맹렬히 벌린 그는 올해에도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용광로직장을 비롯한 도안의 주요전역들을 종횡무진하며 강연선전활동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열정적인 강연선전활동을 벌리는 나날에 그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여러차례 기쁨을 드리였다.

현실에 대한 파악이 깊어야 파탄을 명중하고 성공한다.

리철동무의 강연선전활동은 이것을 다시금 강조해주고 있다.

본사기자 리 정 수

백번이면 백번 명중한 비결

강계의학대학 교무과장 박혁동무

강계의학대학 교무과장 박혁동무의 강연에서 특징은 모든 강연을 위대성교양으로 일관시켜 백번이면 백번 다 사람들의 심장을 틀어잡는 강연으로 되게 한것이다.

그는 모든 강연을 먼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성전을 진행한 다음에 시작하는것을 철칙으로 삼고있다.

박혁동무가 이것을 중시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

언제인가 그는 만포시의 어느 한 농장에 나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격전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내용의 강연을 진행한적이 있었다.

만포방사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전에서 거두고있는 성과들을 현실자료로 안받침한 그의 강연은 그만하면 훌륭히 진행되였다.

그런데 강연이 끝난 후 한 녀성농장원이 불쑥 일어나 부모없는 많은 아이들을 키운 공장지배인 주복순동무와 종업원들이 받아안은 사랑에 대해서 특히 코스모스머리빈침에 깃든 아버지장군님의 은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달라고 하였을 때 그는 당황하지 않을수 없었다.

공장이 이룩한 성과자료에만 관심을 두었을뿐 명도사적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르고있었던것이다.

그래서 그는 신문에서 본 자료들을 몇가지 첨부하여 자기가 알고있는 내용들을 두서없이 이야기하였다.

이를 계기로 그는 교훈을 찾았다.

위대한 장군님을 못 건디게 그리워하는 도안의 인민들의 그 열화와 같은 마음에 맞게 위대성교양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모든 강연활동에 구현해나갈 때 최대의 실효를 거둘수 있다는것이였다.

이때부터 그는 도안의 현지지도단위들과 여러 혁명사적관들을 찾고 접전자들도 만나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성자료들을 수집하기 위한 사업에 달라붙었다.

틈들여 마련한 위대성자료들을 날자별로 종합체계화하여 365일교양자료집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다니며 강연시작전에 그 날자에 해당한 령도업적내용을 해설선전하였다. 또한 강연 전과정도 위대성교양으로 일관시켰다.

언제인가 박혁동무는 강계연필공장에 나가 강연을 하였다.

그날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홍주청년2호발전소를 현지지도하신 뜻깊은 기념일이였다.

그는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청강자들에게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는가고 물었다.

의아해하는 청강자들을 둘러보며 그는 오늘이 바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홍주청년2호발전소를 찾으신 날이라고 하면서 장군님의 현지지도사적내용을 감명깊게 이야기하였다.

사람들은 영광의 그날에 대한 뜨거운 추억속에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눈굽을 적시였다.

이런 숭엄한 감정속에 시작된 강연은 그 전과정이 위대성선전으로 일관된것으로 하여 실효가 대단했다.

청강자들은 자강땅에 새겨진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자욱자욱을 다시금 깊은 감동속에 돌이켜보게 되였으며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산악같이 일떠서게 되였다.

이런 나날에 그는 청강자들로부터 《처음부터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강연강사》라는 평가를 받게 되였으며 오늘은 선군시대 모범강연강사의 크나큰 영예를 지니게 되였다.

박혁동무의 경험은 모든 강연을 위대성교양과정으로 일관시킬 때 백번이면 백번 다 명중하는 성공적인 강연으로 된다는것을 실천적으로 확증해주고 있다.

본사기자 최 영 길

묘향산이 전하는 애국의 자욱

묘향산력사박물관 부부유적관리원들의 생활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민족유산보호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가운데는 외진 산골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누가 알아주건말건 자기 조소를 믿음직하게 지켜나가는 애국자, 숨은 공로자들이 많습니다.》

묘향산의 깊은 산속에 국보적 의의를 가지는 력사문화유적관리에 묵묵히 한생을 바쳐가는 절간관리원부부들이 있다.

그 무엇을 바라서가 아니라 나라의 귀중한 재부인 력사문화유적들을 지키고 빛내여야 한다는 공민된 의무감, 누구나 선뜻 택하기 어려워하는 일터에서 삶의 보람을 찾는 깨끗한 마음으로 이들은 바람소리, 새소리, 물소리만 들리는 심심산중에 스스럼없이 생의 좌표를 정하였다.

관리일지가 전하는 사연

단 하루의 빈자리도 없는 절간관리일지는 우리들로 하여금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였다.

누가 보는 사람은 없지만 매일 관리일지를 펼쳐놓고 자기들이 한 일과 해야 할 일을 또박또박 적어가며 스스로 량심의 총화를 지었을 순결한 모습들이 눈앞에 보이는것만 같았다.

언제든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찾아오실것만 같아 아침저녁 절간주변을 티 한점 없이 쓸고 단청수복과 기와수리를 비롯하여 유적관리에 바쳐온 절간관리원부부들의 헌신의 자욱이 관리일지의 갈피마다에 력력히 새겨져 있었다.

사실 오랜 세월 깊은 산속에서 유적들을 관리한다는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절간보수자재를 지고 다니느라 잔등부분이 더 빨리 해지군 하는 관리원들의 작업복과 어쩌다 한번 절간에서 밤을 보낸 사람들이 날이 새기 바쁘게 산을 내리군 했다는 이야기는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지금도 관리원부부들은 절간관리를 처음 시작했을 때 어쩌다 집에 내려가면 부모들과 같이 산에 가서 살겠다고 떼를 쓰는 어린 자식들과 헤여지기가 제일 힘들었다고 자주 이야기하군 한다.

《언제인가 애들이 불쑥 우릴 찾아왔습니다. 가슴이 철렁하더군요. 그런데 어린 대국이와 미경이가 제 엄마의 생일을 축하한다면서 꽃송이를 내밀며 《오늘은 아버지랑 엄마랑 같이 자두 되나?》 하고 말할 때 우린 정말…》

우리에게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주던 하비로암절간관리원 김수남동무는 이렇게 말끝을 흐리였다.

그렇게 자란 자식들이 군대에 나가 부모들의 궁지스런 자욱우에 자기들의 자욱을 덧새기겠다는 결의를 담아 보내오는 편지를 받을 때가 지금은 이들에게 있어서 제일 행복한 순간이라고 한다.

지금도 우리의 귀가에 멋해진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마지막당부를 외우던 금강암관리원 강실향동무의 젖은 목소리가 들려온다.

《실향아, 현판을 부착한다. 이제 우리 원수님께서 오시면 장군님 앉으셨던 저 료사돌우에 모시자구 했는데…》

그 당부를 가슴깊이 새기고 강실향동무는 절간관리원이였던 어머니의 뒤를 이어 오늘도 아버지와 함께 매일 아침 위대한 수령님의 명도사적이 깃들어있는 금강암의 현판과 위대한 장군님을 모셨던 료사돌을 정성껏 닦는것으로부터 절간관리사업을 시작하군 한다.

깊은 산중에 향심을 묻어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우리는 꺼질줄 모르는 상원암의 불빛에서, 티 한점 찾아볼수 없는 하비로암의 구내길에서, 불영암전설을 구수하게 이야기해주는 관리원 최원홍동무의 맑은 얼굴에서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빛내여가려는 이들의 순결한 애국심을 보았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순간순간을 당과 수령의 사상과 뜻으로 숨쉬고 해끗한 향심으로 불같은 헌신의 자욱을 새겨가는 여기에 우리 시대의 인간들의 가장 값높은 삶이 있다.

진정 언제나 당의 뜻으로 살며 공민적의무에 충실하려는 평범한 인간들의 아름다운 애국충정의 마음과 마음들이 뜨겁게 어려있어 무심히 번질수 없는 절간관리일지였다.

이런 고결한 마음들에 떠받들려 민족의 재부가 더욱 빛나고 있는것이다.

애국의 자욱은 지워지지 않는다

《2016년 10월 20일

오늘 산내절간관리원부부들이 다 모여 단군사기와교체작업을 하였다.

묘향8경의 하나인 단군락조를 바라보며 지붕기와를 교체하는 멋은 아마도 우리만이 느끼는 락일것이다. 작업뒤끝에 마련된 즐거운 좌석에서는 원호물자를 마련하여 인민군대동무들을 찾아가자는 좋은 의견이 제기되였다. 정말 지낼수록 고지식하고 정이 가는 사람들이다.》

《2017년 1월 1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을 어떻게 하면 신성히 더 높이 떠받들수 있겠는가 하는 근심으로 마음이 무거워진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구절구절을 되새길수록 이 나라 력사적인 본분을 다하지 못한 죄스러운 마음을 금할수 없다.

절간관리원에 불과한 우리들을 애국자로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에 비해볼 때 아직 우리가 해놓은 일은 너무나도 적다. 무엇을 더 할것인가. …》

진정 구절구절 새길수록 남모르게 무수한 애국의 자욱을 수놓아온 절간관리원부부들의 값높은 삶을 안아보게 하는 향심의 일기이다.

어찌 이뿐이랴.

지난 10여년간 희귀한 꽃나무들을 정성껏 가꾸어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에 보냈으며 수많은 토끼를 길러 군인들에게 보내주었다.

보석같은 애국의 마음으로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쟁그리 바쳐온 이들의 아름다운 소행은 과연 어디에 뿌리를 두고있는것인가.

산새소리를 벗삼아 외로이 지내는 유적관리원들이 전기불을 보게 해주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태양빛전지판과 흐린 날에도 전기불을 볼수 있는 소형수력발전기를 설치해준 해당 단위의 과학자들에게 온정어린 감사를 보내주신 위대한 장군님,

얼마전에도 이곳 절간관리원부부들은 당의 뜨거운 온정이 어린 수자식인테나가 설치된 해정텔레비존과 화려한 치마저고리감, 산뜻한 작업복 등을 받아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어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우리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는 애국사업이다》**를 발표하시여 응당 해야 할 일을 한 자기들을 애국자, 공로자들로 내세워주시고 또 오늘은 이들의 속마음까지 헤아려 크나큰 온정을 베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우리와 만난 묘향산력사박물관 관장 김영숙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원수님 제일 가까이에 바로 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고 험한 산속에서도 그들은 추운줄도, 외로운줄도 모르고 아름다운 삶을 새겨가고 있으며 보석같은 그 마음들에 받들려 민족유산이 세세년년 빛을 뿌리고있습니다.》

그렇다. 묘향산의 곳곳에 새겨진 절간관리원들의 무수한 자욱은 세월의 눈비에 씻기고 락엽에 덮여 보이지 않을수 있어도 로동당시대에 더욱 빛을 뿌리는 민족의 재부들에 력력히 비껴있다.

값높은 애국의 자욱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

본사기자 김성룡

동림폭포의 독특한 절경

세상에는 이름난 절경들이 많다. 하지만 관서8경의 하나인 동림폭포를 모르고서야 어찌 천하의 절승경개를 다 안다고 말할수 있으랴.

폭포의 진미는 눈으로 보는데만 있는것이 아니라 한번 맞아보는데도 있다는 말은 아마도 이 유명한 동림폭포에서 생겨난듯싶다. 동림폭포의 독특한 운치는 기묘한 바위짬으로 쏟아져내리는 폭포수를 온몸으로 직접 맞아보는 상쾌한 력수맛에 있다고 해야 할것이다. 이 고장에는 동림폭포의 력수를 한번 맞고 류월이 허리를 폈다는 전설도 전해지고있다.

그 청신함과 상쾌함에 절로 마음이 끌리는 희한하고 아름다운 물맞이폭포앞에서 사람들은 너도나도 감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애국주의교양에서 우리 나라의 유구한 력사와 우수한 문화전통, 아름다운 금수강산에 대하여 알려주는것이 중요합니다.》

동림폭포의 특이한 력수풍치는 하늘을 뒤덮을듯싶은 울창한 수림지대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이곳의 관리일군인 김춘남동무는 동림폭포의 맑고 청신한 물은 수백정보의 수림을 거쳐 려과된것이라고 하면서 무더운 여름에 여기에서 력수를 맞으면 온갖 병이 다 없어지고 10년은 젊어지는듯싶다고 하였다.

폭포수에서 흩어지는 물방울들이 고루 퍼져나가는 상쾌하고 청신한 수림지대에서는 특별히 많은 량의 음이온이 산생된다.

사람들은 누구나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무병장수폭포라고 하고있다.

오래전부터 이 지대에는 소나무가 많았는데 지금은 해마다 나무를 많이 심고 산림보호사업을 잘하여 밤나무도 무성하다. 밤이 익는 계절이면 선들바람에도 여기저기서 후둑후둑 밤알들이 떨어져 쌓이고 붉지나무열매향기, 싱그러운 솔잎향기가 골안에 꽉 찬다고 한다. 여기에 노루, 산토끼, 너구리, 오소리, 꿩, 메돼지를 비롯한 다양한 동물들까지 무리지어 서식하고있다.

해방전에는 왜놈들과 지주, 자본가들이 여기에 유흥장을 차려놓고 력수를 맞으며 온갖 도락을 일삼았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 나라를 찾아주신 후에야 동림폭포는 진정한 인민의것으로 되였다. 이름난 명승지마다에 인민을 위한 문화휴식터들을 훌륭히 꾸리도록 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손길아래 동림폭포에도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꽃펴나게 되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대해같은 인민사랑을 노래하며 동림폭포는 오늘도 장쾌하게 쏟아져내린다.

본사기자 리수정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는 적들과 첨예한 대결전을 벌리면서도 언제나 우리 어린이들의 행복한 래일을 그려보군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다심한 온정속에 수도시민들과 천아들이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의 첫물사과를 받아안았다는 소식에 접하고보니 며칠전 평양애육원을 찾았을 때의 일이 떠올랐다. 방마다에서 들리던 아이들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점심식탁앞에서도 울려나오고있었다. 그날 귀한 음식들이 올라있는 식사계획표를 보며 나의 가슴은 뭉클 젖어들었다.

《전쟁불사》 광증을 일으키며 미쳐날뛰는 미제에 의하여 일촉즉발의 정세가 흐르는 속에서도 천아들을 위한 어머니 우리 당의 사랑은 변함없이 뜨겁게 흐르고있었다. 그 따뜻한 손길에 받들려 애육원의 곳곳에서 즐겁게 웃고 떠드는 아이들의 모습이 무심히 안겨오지 않았다.

준엄했던 시련의 시기 원아들을 사랑의 한품에 더 뜨겁게 안아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온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새겨져 나의 가슴은 격정으로 설레이였다.

주체84(1995)년 12월, 나라가 엄혹한 고난을 겪고있던 그 시기 평양시의 육아원에 석탄과 식료품을 정량대로 공급해주지 못하고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으시고 아이들생각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신 위대한 장군님,

자신께서는 그 자료를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 견딜수가 없었다고 하시며 전국의 육아원들에 대한 후방보장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계획된 부식물과 피복류 등 물자와 자재를 무조건 보장해주도록 특별조치를 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친어버이사랑속에 꽃처럼 밝게 웃던 천아들의 모습을 어이 잊을수 있으랴.

적들이 20여만의 대병력과 최신전쟁장비들을 총동원하여 침략적인 《림 스피리트 93》 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려놓은데 이어 미제의 사촉을 받은 제국주의련합세력이 《핵사찰》 소동까지 벌려놓아 우리 조국에 전쟁전야의 위험이 닥쳐왔던 그 시기에도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찾으시였던 어버이장군님이시였다.

그후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라는 뭇깊은 구절의 노래가 태여나 만사람을 얼마나 뜨겁게 울렸던가.

위대한 장군님의 후대사랑의 숭고한 뜻은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사랑속에 더욱 빛나고있다. 나라의 곳곳에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들이 최상의 수준에서 일떠서고 당의 온정속에 아이들이 앞날의 주인공, 강성조선의 기둥감들로 억세게 성장하고있다.

지난 2월 평양초등학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크나큰 사랑을 담아 말씀하시였다.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원아들은 모두 나의 아들딸들입니다. 부자중에서도 제일가는 부자가 자식부자라고 하는데 나는 자식이 제일 많은 자식부자입니다. …

자식 하나를 키우는데 오만공수가 든다고 했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와 같이 전국의 원아들의 친아버지가 되시였다. 자식부자가 되시여 천만공수, 억만공수의 품을 들이시며 아이들을 키우시는 멋에 혁명을 하시고 여기서 더없는 보람을 찾으신다.

우리가 이를 악물고 혁명을 하는것은 바로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기 위해서이라고, 앞으로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원아들을 비롯한 우리의 모든 아이들은 자기들의 웃음을 지켜준 당과 조국을 영원히 기억할것이라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절절한 말씀을 우리 인민은 언제나 심장깊이 새겨안고 산다.

그렇다. 아이들이 더 좋은 세상에서 더 환짝 웃으며 살게 해주시려고 우리 원수님께서는 강철의 신념과 배짱으로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고계신다.

이런 생각을 하느라니 나의 귀전에는 애육원의 창가마다에서 울려나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의미깊게 들려왔다.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예고하는 축포성처럼,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강성조선에 영원히 높이 울려퍼지게 되리라는 절대불변의 진리를 구가하는 시대의 메아리처럼…

본사기자 김명훈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자강력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합니다.》

얼마전 우리는 6월말까지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한 자랑을 안고있는 2중3대혁명붉은기 해운탄광을 찾아 위재길에 올랐다.

산골짜기로 뻗어있는 좁은 길을 따라 얼마동안 달리니 류달리 는길을 끄는 아담한 탄광건물이 우리의 눈에 안겨들었다.

멀리에서부터 눈에 띄게 안겨오던 탄광의 모습은 가까이로 다가갈수록 더욱더 이채로왔다.

잘 꾸려진 정문이며 일매지게 포장된 구내길, 갖가지 꽃들이 활짝 핀 화단들, 기묘한 바위들, 탄광의 상징마냥 《검은 금》덩이를 번쩍 쳐든 곰 등을 형상한 동물조각상들, 탁구장, 온실, 비닐재배장, 토끼사와 동물사…

마치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진 경치좋은 휴양소에 들어선것만 같았다. 감탄을 금치 못해하는 우리에게 마중나온 일군은 이렇게 말하였다.

《사실 10여년전까지만 하여도 여기에는 버럭더미가 쌓여있었습니다. 그러던것을 우리 지배인동무를 비롯하여 종업원 모두가 떨쳐나서 오늘과 같이 누구나 부러워하는 훌륭한 탄광건물을 일떠세웠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지배인 오영환동무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부족한것이 많았다고 한다.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할것인가.

전국에 소문난 본보기탄위들의 경험을 연구하는 과정에 오영환동무는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 철리를 심장깊이 새겨안게 되였다.

《어느날 지배인동무가 탄광전망도를 내놓으며 우리에게 던진것은 자기 힘밖에 없다, 자력갱생의 정신만 있으면 무에서 유를 창조할수 있다고 열렬히 호소하는것이였습니다. 그 말에 힘을 얻은 우리 종업원들은 한사람같이 떨쳐일어나 갱건설과 탄광건물공사를 다같이 다그쳤습니다.》

일군의 말을 들으며 우리는 탄광건물에 새겨진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라는 신념의 글발의 참뜻을 다시금 새겨보았다.

우리가 처음 들어선 곳은 식당이였다. 식당을 번듯하게 꾸려놓아 탄부들이 좋아하겠다는 우리의 말에 쉬사원은 자체의 힘으로 건설한 태양열남새온실에서 철따라 남새도 생산보장하고 토끼를 많이 길러 탄부들에게 토끼곰도 해준다고 한바탕 자기네 부업기지자랑을 펼쳐놓는것이였다.

올해에는 미꾸라지양어도 할수 있는 태양열온실, 비닐재배장을 더 늘이고 축사까지 그쯘하게 꾸려놓아 후방사업은 걱정없다는 그의 말이 우리를 더욱 기쁘게 해주었다. 탄부들에게 풍성한 식락과 더 좋은 휴식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아글타글 애쓰고있는 록해운성 국장 김용일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정무원들의 남모르는 수고와 진정, 탄광을 자체의 힘으로 더욱 훌륭하게 꾸려가려는 이곳 일군들의 이악한 살림살이기풍이 안아온 결실이였다. 후방사업이야말로 기적과 혁신창조의 중요한 밑거름이라는것을 다시한번 새겨보게 하였다.

우리는 야외휴식터도 돌아보았다.

비력더미가 있던 곳에 성토를 하고 꾸린 야외휴식터는 그야말로 한폭의 그림을 방불케 하였다.

파아란 잔디를 입히고 휴식조건을 그윽히 갖추어놓은 이곳에 서니 왕포도렴굴밑에서 도라지꽃향기속에 더욱 울리는 탄부들과 가족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금시 들려오는것만 같았다.

말그대로 로동과 생활이 기쁨으로, 노래로 된 탄부들의 행복의 보금자리였다.

어찌 이뿐이랴.

자연흐름식수도화를 실현하여 하루 24시간 수질이 좋은 물을 보장한다는 목욕탕이며 자체의 힘으로 일떠세운 수십세대의 살림집, 밤이면 밤대로 태양빛전지판을 리용하여 생산한 전기로 산골마을의 야경을 돋군다는 희한한 불장식…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제힘으로 흥하는 자랑많은 탄광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우리의 속생각을 알아차리기나 한듯 동행한 일군은 말을 이었다.

《우리 탄광의 자랑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는 탄광이 매해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설비판리를 깐지게 하여 2중3대혁명붉은기, 2중26호모범기대영예상을 수여받았다고 하였다.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참으로 탄전에 높이 울려퍼지는 탄부들의 행복넘친 웃음소리는 자기 힘을 굳게 믿고 떨쳐나설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철리를 우리의 가슴속에 다시금 깊이 새겨주었다.

우리는 당의 뜻을 받들어 자강력제일주의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진군의 발구름소리를 힘있게 울려갈 탄광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미더운 모습을 그려보며 이곳을 떠났다.

본사기자

‖방문기‖

제힘을 믿고 일떠선 긍지

2중3대혁명붉은기 해운탄광을 찾아서

독자의 편지

우리 보건제도가 제일입니다

저의 남편이 뜻밖의 일로 상하여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 구급과에 실려온것은 지난 7월말이였습니다.

완전심폐정지로 심장과 호흡이 다 멎고 이미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것이나 다름없는 남편을 안타까이 찾으며 제가 절망에 몸부림치고있을 때 한남선생님을 비롯한 구급과의 의사선생님들은 지체없이 소생전투에 진입하였습니다.

초를 다투는 긴장한 전투속에 마침내 남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자 한남선생님은 《환자동무, 고맙소! 정말 고맙소! 우리 끝까지 용기를 내자구…》라고 하면서 남편을 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것이였습니다.

그후 소생과로 옮겨진 저의 남편은 과장 홍근민, 담당의사 리영근선생님들의 극진한 치료속에 건강을 회복하고 병원문을 나서게 되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사회주의보건제도가 아니였다면 어떻게 다 죽었던 저의 남편이 생의 기쁨을 다시 찾을수 있었겠습니까.

생명을 구원해준 의사가 환자에게 고맙다고 먼저 인사를 하고 남편의 머리말을 지켜 밤을 새우던 의사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의료일군들이 있기에 인민의 건강과 생명이 지켜짐을 눈물속에 새겨안았습니다.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정신을 지닌 참된 보건일군들이 지켜선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가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중구역 해방산동 26인민반 현성희

고려 15대왕 숙종의 무덤 새로 발굴

최근 개성시 선적리에서 고려 15대왕 숙종의 무덤이 새로 발굴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가치있는 력사유적유물들을 더 많이 발굴하여 민족문화유산의 보물고를 풍부히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우수한 민족문화유산을 더 많이 발굴함에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조선민족유산보존사에서는 숙종의 무덤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심화시켰다.

연구집단은 국가과학원 지구환경정보연구소 연구사들과 함께 《고려사》 등 비롯한 문헌기록자료들을 연구하고 위성화상에 의한 공간정보기술을 도입하여 고려왕릉들이 존재할수 있는 지점들에 대한 공간분포특성을 분석하고 무덤의 위치를 확증하였다.

조선민족유산보존사 연구사들과 발굴대원들은 개성시민족유산보호관리소와 고려박물관 연구사들과 합심하여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20여일간 선적리에서 발굴을 진행함으로써 숙종의 무덤을 찾아냈다.

고려 15대왕 숙종은 11대왕 문종의 셋째아들로서 본래 이름은 왕옹이고 1096년부터 1105년까지 10년간 왕위에 있었다.

숙종이라는 말은 고려 15대왕의 시호이다.

개성시 선적리소재지로부터 서쪽으로 3km정도 떨어진 나지막한 산경사면중턱에 자리잡고있는 숙종의 무덤규모는 남북길이 29m, 동서너비 13m정도로서 동서방향으로 놓인 4개의 축대에 의하여 구분되는 3개의 구획으로 이루어졌다.

북쪽의 1구획에는 무덤칸과 봉분기단시설, 곡장(무덤봉분둘레에 둘러놓은 담장)시설이 있으며 2구획과 3구획에는 문관상과 무관상들이 각각 2상씩 동서 6m정도의 간격을 두고 대칭으로 마주서있다.

무덤칸은 잘 다듬은 화강석통돌들을 2단으로 쌓아 남북길이 300cm, 동서너비 120cm, 높이 160cm로 된 반지하시구조물이다.

발굴과정에 왕릉으로서의 성격과 시기적특징을 보여주는 금박을 입힌 나무관껍질조각들과 고려시기의 청동숟가락쪽지, 룡무늬암기와막새와 봉황새무늬수기와막새, 룡태가리모양잡상(지붕장식기와의 일종)조각이 발견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고학학회에서는 발굴현장에서 이 유적이 고려 15대왕 숙종의 무덤임을 고증하였다.

이번에 발굴된 고려 15대왕릉은 조선민족의 첫 통일국가인 고려의 발전된 문화를 새롭게 해명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조선중앙통신】

새로 발굴된 고려 15대왕 숙종의 무덤전경

무덤칸 입구

무덤칸 내부

입안위생관리

입안위생을 잘 지키는것은 이삭기와 치주병을 비롯한 치과질병을 미리막고 건강을 유지하는데서 매우 중요하다.

자료에 의하면 건강한 사람의 입안에는 보통 20~50종의 세균이 있지만 입안위생상태가 불결할 때에는 200~300여종으로 늘어나 여러가지 질병을 발생시킨다고 한다. 따라서 누구나 자체입안위생관리상식을 잘 알고 철저히 지켜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질병을 미리막기 위한 사업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그들자신이 하여야 할 사업입니다.》

자체입안위생관리방법에는 이닦기와 혀닦기, 치간청결, 입가심 등이 있다. 여기서 기본은 이닦기이다.

이닦기는 치솔과 치약을 리용하여 이빨과 이몸을 깨끗하게 하며 적당한 안마자극을 주어 이몸조직을 건강하게 한다. 이닦기는 하루 2번, 아침식사후와 잠자기전에 진행한다. 식사후 20~30분후에 1~3분정도 하는것이 좋다.

치솔을 오래 사용하면 솔부위에서 각종 세균과 비루스가 증식하여 입안 및 전신질병을 일으킬수 있으므로 2~3달에 한번씩 교체하여야 한다.

물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아침과 저녁에 물이세척솔과 물이세척제로 닦고 식사후에는 찬물로 잘 씻어야 한다. 이몸점막도 솔이 연한 치솔과 더운물로 닦고 마찌지하는것이 이몸건강에 좋다.

이닦기로는 입냄새의 원인인 휘발성류황화합물을 25%밖에 제거하지 못하지만 혀닦기까지 진행하면 75%이상 제거된다고 한다. 특히 혀뒤부분의 유두와 틈새에는 많은 세균이 남아있기때문에 혀솔로 4~5번 닦으면서 깨끗이 닦아내야 한다.

이발사이의 침착물은 치간실, 이쑤시개와 같은 치간청결품을 리용하여 제거한다.

입안물컬물을 제거하는 보조적수단으로 입가심약과 껌이 리용되고있다. 이닦기와 입가심을 함께 하면 입안위생상태가 더욱 개선된다.

껌은 침분비량을 늘여 이때가 끼지 않게 하며 침의 pH를 정상으로 유지시킨다. 그렇다고 껌을 너무 자주 또오래 씹으면 저작근(씹는 근육)이 항상 긴장되여 잠을 잘 때 이발을 가는 습관이 생길수 있다.

현재 많이 생산되고있는 크실리톨이 들어간 껌은 이삭기예방효과가 있으므로 하루에 2~3번, 식후에 30~40분정도 씹으면 좋다.

40대이후부터는 침분비량이 적어지면서 입안의 자체청결능력이 낮아져 입냄새가 날수 있으므로 나이가 들수록 입안위생을 지키는것을 생활화, 습관화하여야 한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교원 신유경

새 기술소식

주목을 끌고있는 수직축풍력발전기

자료에 의하면 최근 바람속도가 작은 조건에서도 기동이 잘되는 수직축풍력발전기가 주목되고있다.

지금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고있는 풍력발전기는 수평축에 프로펠러식날개가 설치된 수평축풍력발전기이다. 이 발전기는 프로펠러가 날개의 앞뒤면에서 공기흐름속도차에 의해 조성되는 양력의 작용으로 회전하는데 양력이 날개면적과 바람속도의 2제곱에 비례하여 커지므로 대형화하여 바람속도가 높은 지역에 설치하는것이 효률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평축풍력발전기는 날개제작이 복잡하고 지지탑우의 수평축선상에 프로펠러와 증속기, 발전기를 설치해야 할뿐아니라 바람방향추종장치도 장비해야 하므로 제작원가가 높고 바람속도가 작은 지역에서는 가동률이 낮은 문제점을 가지고있다.

수직축풍력발전기는 풍차의 회전축이 수직으로 설치되여있다. 풍차에는 S형, Φ형, H형 등이 있다.

수직축풍력발전기는 바람방향추종장치가 필요없고 증속기, 발전기와 같은 중량물들을 설치기둥아래부분에 배치할수 있으며 날개구조가 비교적 간단하므로 제작원가와 설치비용이 낮다. 그러나 지난 시기에는 수평축풍력발전기보다 효률이 낮은것으로 인식되여 그에 대한 관심이 높지 못하였다. 콤퓨터를 리용한 계산류체력학의 출현으로 수직축풍차의 공기동력학적특성이 새롭게 밝혀지고 그 효률을 훨씬 높일수 있다는것이 확증되면서 수직축풍력발전기에 대한 연구개발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여러 나라들에서는 수직축풍력발전기를 도시와 같이 바람속도가 작은 지역에서도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다고 보면서 효률높은 여러가지 수직축풍력발전기들을 개발하고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동향은 우선 바람안내관을 설치하거나 날개각도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수직축풍차의 효률을 높이고있는것이다. 또한 자기부상베아링을 도입하여 마찰부분의 저항력을 줄임으로써 기동성을 개선하고있는것이며 발전기지경을 늘이지 않으면서 큰 출력을 낼수 있는 축방향영구자석동기발전기를 개발하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제5차 백두산위인칭송국제축전에 참가하였던 외국손님들이 떠나갔다

제5차 백두산위인칭송국제축전에 참가하였던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국제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인 도시 및 지방정부련합 아시아태평양지역대사와 일행,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위원장과 일행, 나이제리아인민진보당 전국위원장과 일행,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지 일본위원회 의장과 일행, 아시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위원장과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스리랑카준비위원회대표단,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스웨리예준비위원회대표단,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단마르크준비위원회대표단,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슬로벤스꼬준비위원회대표단,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핀란드준비위원회대표단,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영국준비위원회대표단, 일조우호활동가대표단,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오세안지역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일행,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일행, 프랑스파이금진당 전국비서일행,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인민단결기구 총서기, 환경교육보급계획 집행국장, 슬로베니아청년당—유럽록색 위원장, 스위스조선위원회 위원장,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오스트리아준비위원회대표, 브라질자유조국당 부위원장, 조선통일지지 쿠웨이트위원회 위원장, 도이췰란드련방공화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협회 부위원장이 19일 비행기와 렬차로 평양을 떠나갔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의 승리적전진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다

여러 나라 단체들 성명 발표, 신문에 글 게재, 인사 담화 발표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성공을 축하하여 민주꽁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꽁고-조선친선 및 련대성협회가 7월 31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대륙간탄도로케트《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의 성공은 조선로동당의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이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할수 있는 굳건한 담보를 마련한 일대 장거로 된다.

동방의 핵강국으로 일떠선 조선에는 미국의 전횡이 절대로 통할수 없다.

조선의 승리적전진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다.

미국은 국제적인 제재와 압박을 떠들며 부질없는 소동을 피우지 말고 사회주의조선의 전략적지위를 인정하고 대조선정책전환을 하여야 할것이다.

우리는 정의를 사랑하고 자주를 지향하는 세계진보적인민들과 함께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온갖 제재압박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지키며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조선의 자위적조치들을 적극 지지하며 이에 굳은 련대성을 보낸다.

※ ※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성공을 축하하여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조, 주체철학연구소조, 선군정치연구소조, 자력갱생연구소조가 7월 31일 련합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각하께서는 대륙간탄도로케트《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를 단행할데 대하여 친필명령하시고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존엄과 위용을 다시한번 떨친 조선의 국방과학자들과 인민들을 열렬히 축하한다.

이번 시험발사를 통해 임의의 지역과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대륙간탄도로케트를 기습발사할수 있는 능력이 과시되였으며 미본토전역이 조선의 사정권안에 있다는것이 뚜렷이 립증되였다.

우리는 조선이 불패의 강대성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는 전략무기들을 더 많이 개발완성하여 반제반미대결전에서 반드시 최후승리를 이룩할것이라고 확신한다.

※ ※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성공과 관련한 글을 인도네시아, 민주꽁고의 인터네트신문, 홈페지가 4일과 5일에 게재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인터네트신문 《르몰》은 《미국을 점점 수세에 몰아넣고있는 북조선의 대륙간탄도로케트》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전하였다.

지난해부터 북조선은 첫 수소탄시험과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화성-10》시험발사,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시험발사 등에 이어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화성-12》형 시험발사,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를 련속적으로 단행하였다.

북조선은 트럼프행정부의 핵위협에 심대한 타격을 안기고 있다.

트럼프행정부는 선행한 미행정부들의 전략적실패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구태의연하게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북조선은 추호의 동요나 탈선도 없이 자기가 선택한 길로 나아가고있다.

북조선이 대륙간탄도로케트까지 보유한 시점에서 미국은 그 어떤 정책적대안도 내놓기 어렵게 되였다.

민주꽁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는 《미본토전역이 사정권안에 들었다》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조선의 대륙간탄도로케트《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의 대성공이 미국을 커다란 악몽속에 몰아넣고있다.

이번에 발사된 탄도로케트는 미본토전역을 사정권안에 두고 있다.

조선은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미국본토의 임의의 지역을 마음먹은대로 타격할수 있다는것을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미국이 아무리 부정하려고 하여도 이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미국정객들이 두려워하는것은 단지 《화성-14》형이 미본토전역을 사정권안에 두고있기때문만이 아니다.

그것은 조선이야말로 미국을 가장 확실하게 타격할수 있는 의지를 지닌 나라이기때문이다. 그것도 조선반도에서가 아니라 미국본토에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하려 하고있다.

조선은 미국과의 최후결사전을 각오한 나라이다.

하기에 미국은 조선을 그토록 두려워하고있는것이다.

조미대결전에서의 조선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한편 7월 14일부터 8월 1일까지의 기간에 잠보자국가라지오방송과 《자브뜨라》, 《쁨쏘폴스까야 쁘라우다》, 《제브리 데웨》, 《이르꾸쯔크블로그스포트.루》를 비롯한 로씨야의 신문, 인터네트홈페지들은 《세계를 뒤흔든 뵈성》, 《정의의 승리》, 《조선의 〈선물〉》 등 제목의 글들에서 대륙간탄도로케트《화성-14》형 시험발사성공이 가지는 의의에 대해 평하였다.

※ ※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성공을 축하하여 베루로동자, 농민, 학생인민전선 총서기 까떼 잡뽀스 룬돔이 3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이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에서 또다시 성공한것은 나라의 자주권과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담보하려는 조선로동당과 정부의 의지를 다시금 힘있게 과시한 사변으로 된다.

이것은 미제의 침략과 간섭, 강권과 전횡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진보적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적힘을 안겨주고있다.

우리는 세상사람들의 경탄의 대상으로 되고있는 강위력한 사회주의조선을 일떠세우시고 빛내여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그리고 그분들의 사상과 위업을 견결히 옹호고수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업적을 높이 칭송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미국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과감히 짓부시며 사회주의강국건설과 나라의 자주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하고있는 조선로동당과 인민의 편에 확고히 서있을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친미에 환장한자들의 매국배족행위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우리의 핵공격능력에 얼혼이 나간 괴뢰군부호전광들이 제 죽을지도 모르고 어리석게 날치고있다. 괴뢰국방부가 《북의 미싸일위협》에 대처한다는 간판밑에 올해안에 《싸드》발사대 4기를 추가배치한다는것을 결정하고 부랴부랴 《싸드》기지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놀음을 벌린것이다. 이것이 남조선인민들이 강력히 반대배격하는 《싸드》를 기어코 끌어들이려는 술책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괴뢰군부의 망동은 남조선인민들의 운명과 리익을 희생시켜서라도 미국상전의 요구를 무조건 실현하려는 용납 못할 매국배족행위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남조선당국은 지금껏 《싸드》배치와 관련하여 그 무슨 《절차적정당성》에 대해 운운하였다. 하지만 그것이 내외여론을 오도하면서 종당에는 《싸드》배치에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책이라는것이 이번에 뚜렷이 립증되였다.

남조선에서 각계층 인민들의 《싸드》배치반대투쟁이 고조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합의를 되돌리지 않을것》이라느니 뭐니 하며 미국상전의 비위를 맞추고 비굴한 자세를 취하는 남조선당국자들이 달리 처신할수 없다.

애당초 남조선집권세력에게는 《싸드》배치계획을 철회할 의사가 꼬물만큼도 없었다. 오히려 그들의 골통에는 《싸드》배치를 통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그것을 통해 동족을 배척 앙심만 박 들어차있을뿐이다.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협약한 사태가 그것을 명백한 사실로 보여주고있다.

《싸드》의 남조선배치가 미싸일방위체계의 수립으로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전략적우세를 차지하려는 미국의 패권전략의 산물이라는것은 공인된 사실이다. 미국이 《북의 핵, 미싸일위협》을 걸고 그 무슨 《방어》타령을 늘어놓으며 《싸드》배치를 합리화해보려 하지만 그것은 저들의 침략적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뻔뻔스러운 추태이다.

《싸드》는 미국이 남조선을 《보호》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지역의 대국들을 견제하고 이 지역에서 군사적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필요한것이다. 남조선의 군사전문가들도 《북의 미싸일들을 〈싸드〉로 막는다는것은 황당한 노릇》이라고 하면서 남조선은 《미본토에 대한 타격을 막기 위한 방패막이》일뿐이라고 주장한바 있다. 《싸드》배치는 전적으로 미국의 전략적리익을 실현하기 위한것이다.

더우기 미국은 우리의 다발적이고 련발적인 핵억제력강화조치에 질겁한 나머지 《싸드》배치와 관련하여 현 남조선당국에 로골적인 압력을 가하였다. 미국이 남조선당국에 《싸드》배치를 완료해야 할 기간까지 정해놓고 그 실행을 강박한것과 《싸드》배치를 늦추면 남조선에 있는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은것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노발대발하는 미국상전의 비위를 맞추느라 쩔쩔매던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를 구실로 《안전보장회의》라는것을 긴급소집하고 《싸드》발사대추가배치를 지시하는 망동을 부리였다. 남조선당국이 그에 대해 마치도 《북의 핵, 미싸일위협》에 대처한 자체의 《결단》으로 광고했지만 사실상 그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에 지나지 않는다. 《싸드》발사대추가배치소동은 철두철미 미국의 강박과 그에 순종해나선 남조선당국의 친미사대매국행위에 따른것이다.

미국상전의 압력에 굴복한 남조선당국이 괴뢰군부를 내세워 《싸드》배치에 팔걷고나서는것은 결국 예속과 죽음의 올가미를 스스로 들쓰는 천하의 어리석은짓이다. 남조선집권세력이 《싸드》발사대추가배치소동에 박차를 가하는것은 저들의 운명에 어떤 망조가 비낀줄도 모르고 혜텀비는 가련한자들의 마지막몸부림일따름이다.

《싸드》배치는 남조선을 미국과 주변대국들의 위험천만한 핵대결장으로 전락시키고 남조선인민들의 생존권과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며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군사적대결과 긴장을 극도로 격화시키는 파국적후과만을 빚어내게 될것이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이 사대매국적인 《싸드》발사대추가배치결정에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강력한 항의투쟁에 떨쳐나서고있는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남조선당국은 민심의 지향과 요구를 똑바로 보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할것이다.

라 영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대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오스트랄리아정부가 조선반도와 지역정세를 격화시키는 미국의 책동에 편승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19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지난 11일 오스트랄리아수상은 현지 라지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오스트랄리아를 비롯한 동맹국들과 함께 있다느니, 안쥬스조약은 미국이 공격받으면 오스트랄리아가 미국을 도우며 오스트랄리아가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돕는다는것을 의미한다느니 하면서 유사시 미국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망발을 늘어놓았다.

한편 이 나라 국방상과 군부인들이 나서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에 오스트랄리아무력을 파견하겠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현재 트럼프가 《화염과 분노》요 뭐요 하는 전쟁광기를 드러낸것으로 하여 미국내에서 수많은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정계, 사회계인물들의 비난이 비발치고 국제적으로는 동맹국으로 자처하던 나라들도 미국의 침략책동에 가담하지 않으려고 하고있다.

오스트랄리아수상이 유명무실한 안쥬스조약까지 꺼들면서 미국의 침략책동에 가담하겠다고 한데 이어 군부가 미국의 침략적인 핵전쟁연습에 무력을 파견하겠다고 발표한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낄줄 모르는 정치적미숙성의 표현으로서 스스로 화를 불러오는 자멸행위이다.

가뜬은 트럼프의 군사적대결망동이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것이라고 비난하던 오스트랄리아수상이 자국의 리익은 안중에도 없이 미국의 혼시 한마디에 자기의 립장을 순식간에 바꾸는 허수아비노릇을 한것이다.

오스트랄리아가 미국을 따라 조선전쟁과 월남전쟁, 《반테로전》에 참가한 대가는 수많은 희생과 엄청난 손실뿐이였다.

오스트랄리아정부는 력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미국의 핵전쟁책동에 편승할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오스트랄리아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것이 더 좋을것이다.

오스트랄리아와 같이 미국에 무턱대고 추종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군사적모험에 가담하는 나라들은 우리의 정의의 대응조치를 면치 못할것이다.

조선의 모든 자위적조치들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스위스단체들 공동성명 발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지지하여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스위스준비위원회, 스위스조선위원회,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가 7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미국은 조선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걸고들며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제재결의》 제2371호라는것을 조작해냈다.

《제재결의》는 조선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완전히 가로막을것을 노리고있다. 이것은 미제에 의해 고안되고 날조된 극악한 반인륜범죄가 아닐수 없다.

조선이 핵시험과 로케트시험발사를 하는것은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천만번 정당한 행동이다.

조선이 파렴치한 침략자들에게 취하는 단호한 대응조치들에 의해 미국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조선의 모든 자위적조치들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제재결의》 제2371호의 조작은 대량살륙행위이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을 징벌하라!

미국의 《감사》를 받은 나라들은 수치를 느껴야 한다.

【조선중앙통신】

에스빠냐에서 테로공격사건으로 수많은 사상자 발생

에스빠냐의 바르쎌로나시에서 17일 테로공격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날 오후 20대의 한 무장괴한이 수많은 주민들과 관광객들로 붐비는 라스 람블라스거리로 자동차를 고속으로 마구 몰아대여 16명이 죽고 100여명이 부상당하였다.

부상자들중 중상을 입은 사람들의 생명이 위독한것으로 하여 사망자수가 더 늘어날것으로 예견되고있다.

사건현장주변의 지하철도역과 철도역이 폐쇄되었다.

이 나라 경찰당국은 이번 사건을 테로공격으로 인정하였다.

국제테로조직인 《이슬람교국가》가 바르쎌로나시에서의 테로공격을 자기들이 단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유엔과 여러 나라 정부들이 바르쎌로나시에서 감행된 반인륜적인 테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민주꽁고에서 흙사태로 많은 인명피해

민주꽁고의 동북부 이뚜리주에서 17일 무더기비로 인한 흙사태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

흙사태로 3개 마을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중 1개 마을은 통채로 묻히였다.

결과 이날현재 100여명이 사망하고 여러명이 행방불명되였다.

피해현장에 접근하기 어려운것으로 하여 사망자수가 앞으로 더 늘어날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긴급구조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일제의 범죄적만행을 철저히 계산할것이다

조국이 해방된 때로부터 7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우리 전체 조선민족은 과거 일본이 감행한 천인공노할 죄악을 한시도 잊지 않고있다.

《명치유신》이후 《정한론》을 운운하면서 우리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만을 노리던 일제침략자들은 1875년 9월 《운양》호사건을 조작하고 이를 구실로 다음해에 조선봉건정부를 협박하여 날강도적인 《강화도조약》을 조작하였다. 20세기초에 일제는 로골적인 위협을 가하여 《을사5조약》을 비롯한 불법무법의 조약들을 련이어 날조하고 우리 나라를 저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시켰다. 조선민족은 가혹한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 갖은 고통과 멸시, 착취와 략탈을 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일제는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파쑈통치기간 조선민족에 대한 범죄적인 학살과 폭압만행을 일삼았다.

국권수복을 위해 각지에서 거세차게 일어난 의병투쟁과 독립군운동뿐만아니라 3.1인민봉기와 6.10만세시위투쟁을 비롯한 반일애국투쟁들을 총칼로 야수적으로 진압하면서 온 강토를 피바다로 만들었다. 그후에도 조선사람들속에서 자그마한 반일요소라도 보이면 어린이건 녀인이건 늙은이건 가리지 않고 무자비하게 살해하였다.

언제인가 일본의 《마이니찌신붕》은 조선과 아시아나라들에서 감행한 일제의 범죄적만행들을 고발하는 문건들을 쌓아놓으면 2만m나 된다고 밝힌바 있다. 그만큼 일제가 우리 인민에게 끼친 죄악은 엄청난것이다.

일제가 해외침략전쟁을 계단식으로 확대하면서 조선인민을 대상으로 감행한 범죄적만행은 더욱 극악무도한것이였다. 고갈되여가는 인적자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가총동원법》, 《국민징용령》을 비롯한 각종 악법들을 마구 조작발포한 일제는 그에 기초하여 수많은 조선의 청장년들을 죽음의 고역장들과 전쟁터에 강제로 끌어내여 마소처럼 부려먹었다. 많은 사람들이 중세기적인 노예로동을 강요하는 일제의 채찍밑에서 무리로 쓰러졌다.

40여년간에 걸친 일제의 야만적인 식민지통치로 하여 수많은 조선청장년들이 일제의 대륙침략전쟁의 대포밥으로 끌려갔고 죽음의 고역장들에서 인간이하의 천대를 받으며 노예로동에 시달렸다. 관권과 군권을 총발동하여 조선녀성들을 침략군의 성노예로 만든 범죄적만행은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극악한 특대형반인륜적죄악이였다. 20만명의 무고한 조선녀성들이 강제련행, 랍치되여 침략전쟁터들에 끌려다니면서 일제야수들에 의해 인간으로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치욕을 강요당하였다. 일제는 성노예들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저들의 변태적인 성적요구를 충족시켜주는 《동물》로 취급하였다. 일제의 귀축같은 만행으로 수많은 조선녀성들이 낯설고 물설은 이국땅에서 무참히 숨졌으며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성노예피해생존자들도 수치와 모멸감, 고통속에 몸부림치다가 비명에 죽지 않으면 안되였다.

일제의 조선민족말살책동 역시 동서고금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을만큼 악독한것이였다. 《내선일체》, 《동조동근》의 기만적인 구호밑에 《황국신민화》정책을 강행한 일제는 조선사람의 성과 이름, 말과 글까지 빼앗으려 하였으며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를 없애버리기 위해 수많은 서적들을 불태워버리고 헤아릴수 없이 많은 국보적인 력사유물과 유적들을 략탈는대로 파괴하고 략탈하였다. 일제는 조선에서 천문학적액수에 달하는 지하자원과 거의 모든 생산물들을 악착하게 긁어갔으며 지어 우리 인민들이 가정에서 사용하던 놋그릇과 놋수저마저 마구 빼앗아갔다.

일본은 우리 인민에게 천추에 씻을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고 영원히 아물수 없는 원한의 상처를 남긴 천년숙적이다.

일본이 조선민족앞에 저지른 과거의 엄청난 죄과에 대해 성근하게 사죄하고 배상하는것은 법적, 도덕적, 국제적의무이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일본은 과거죄악에 대한 성근한 사죄와 배상은커녕 저들의 피비린 침략력사를 외곡하고 재침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으며 군국주의부활을 꿈꾸고있다.

지금 일본반동들은 우리 공화국의 《핵 및 미싸일위협》에 대응한다는 구실밑에 정탐위성발사와 신형요격미싸일도입, 미공군과의 합동훈련, 미해항공모함타격단과의 련합훈련에 기승을 부리다 못해 각 지방별로 주민대피훈련이라는것까지 벌리면서 북닥소동을 피우고있다. 우리의 자위적국방력강화조치들이 련이어 취해질 때마다 도표복판에서 혜록란이 터지기라도 한것처럼 자지러진 비명을 지르며 병적반응을 보이고있는것이 섬나라족속들이다. 일본반동들이 좀스럽고 못된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제아무리 악을 써도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것을 정치난쟁이의 잠망스러운 추태로밖에 보지 않는다.

우리의 《위협》을 구실로 군국주의를 부활시키고 군사대국화를 실현하여 재침야망을 키여이 실현하자는것이 일본반동들의 속심이다.

해묵은 죄악에 새로운 죄악을 덧쌓으며 이발을 갈고있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예리하게 주시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일본이 저지른 과거죄악을 철저히 계산하고있다. 그리고 그 대가를 반드시 받아내고야말것이다.

일본반동들은 침략력사를 부정하고 외곡하면서 과거의 제국시대를 되살려보려고 발악할수록 무덤길을 재촉하게 될뿐이라는것을 명심하고 분별없이 날뛰지 말아야 한다.

라 명 성

리성을 잃은자들의 분별없는 망동

지금 미국에서 《예방전쟁》마당을 우리의 주권이 행사되는 공화국북반부지역으로 정하는것이 저들에게는 피해가 없는 《리상적인 선택》일수 있다느니, 가장 단호한 행동을 취할것이라느니 뭐니 하는 망발들이 계속 튀여나오고있다.

침략목적을 한사코 이루어보려는 양키식 사고의 집중적인 표현이다.

이로 하여 남조선에서 반미감정이 거세어지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트럼프가 자기들의 생사감은것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있는데 대해 격분해하면서 수천명, 수만명이 죽어도 조선반도의 일이라는 그의 인식자체가 충격적이라고 질규하고있다. 그들은 조선반도는 미국의 전쟁놀이터가 아니라고 하면서 리성을 상실한 전쟁광을 규탄하고있다.

지금 수만명에 달하는 남조선강점 미군도 불안과 공포에 떨고있다.

돈에 팔려 남의 땅에서 전쟁연습에 내몰리우며 시달림을 받는것도 고달픈데 이제는 개죽음까지 당해야 할 형편에 처한 그들이다. 우리 군대의 멸적의 불줄기를 다소나마 피해보려고 기지이전놀음까지 벌렸건만 소용없다. 신세가 참으로 가련하게 되였다.

남조선강점 미군속에서 전쟁공포증이 만연하고있는것은 당연하다. 미침략세력이 아무리 핵전략자산들을 조선반도주변에 들이밀면서 저라된 사기를 돋구어주려 해도 소용없다.

프랑스의 AFP통신과 록셈부르그의 한 신문은 미국본토를 사정권안에 넣은 조선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후 남조선에서 새로운 공포기운이 조성되고있으며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하였다. 계속하여 남조선의 보수언론들이 미국이 과연 남조선을 보호해줄수 있겠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형세가 저들이 최악의 상황으로 여겨온 미군철수의 방향으로 흐르고있다고 개탄한데 대해 전하였다.

미국은 트럼프가 《화염과 분노》니 뭐니 하고 동이 닿지 않는 막말을 마구 꿰쳐대면서 사태를 험악한 지경으로 몰아간다는데 있다.

우리 공화국이 두차례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에서 성공한것으로 하여 본토안전보장에 통구멍이 난데 대한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인 나머지 정신이 돌락날락하는 모양이다.

미국회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 맥케인은 그것이 《미국민을 심각한 대결에로 이끌고가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고 비난하였다. 전 미국가정보국 장관은 CNN방송에 출연하여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상상할수 없는 피해와 남조선주둔 미군을 포함하여 수많은 희생자가 날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트럼프의 막된 발언으로 하여 지금 미국에서는 북닥소동이 벌어지고있다. 트럼프의 보좌관들이 그 과장이 걷잡을수 없이 퍼지는것을 막느라고 애쓰고있다. 그들은 예상치 못했던 대통령의 즉흥적인 발언에 깜짝 놀랐다고 하면서 트럼프를 탓하고있다.

공화당소속의 한 국회 상원의원은 폭스뉴스TV방송에 출연하여 《정부가 조선반도에서의 〈예방전쟁〉을 군사적방안의 하나로 생각하고있다면 헌법 제1조에 따라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트럼프를 비난하였다. 민주당소속 국회 하원의원 60여명이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여 트럼프의 마구잡이말언이 조선과의 긴장을 급격히 고조시켜 핵전쟁발발의 가능성을 높이고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대통령의 사고를 정돈시켜줄것을 요구하는 정도이다. 트럼프의 한 보좌관은 미국에는 조선의 《위협》에 대처한 군사적해결책이 없다는데 대해 실토하였다.

사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북과의 전쟁을 불사하겠다.》, 《전쟁을 해도 조선반도에서 하는것이고 수천명이 죽더라도 거기서 죽음이 나는것이지 미본토에서 죽지는 않을것이다.》, 《북조선의 핵제획을 멈추기 위해 미국인들이 죽어야 한다면 미국본토가 아니라 조선반도에서 죽는것이 마땅하다.》고 미친 폭언을 해대고있다. 리성을 잃은자의 분별없는 망동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미국은 이제라도 현실을 바로 보아야 한다.

우리 공화국은 미국본토를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의 순간에 마음먹은대로 타격할수 있는 최강의 대륙간탄도로케트보유국이다. 괌도든 하와이든 본토이든 우리 전략군의 무자비한 타격에서 벗어날수 없다.

우리 군대는 원쑤들을 제압할 만단의 전투준비를 갖추고 고도의 격동상태에 있으며 《예방전쟁》행위의 사소한 징후라도 포착되는 경우 그즉시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것이다.

그로부터 초래될 재난에 대해서는 미국이 책임져야 한다.

조 택 범

자멸을 재촉하는 어리석은 행태

미국방성이 21일부터 남조선괴뢰들과 악명높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시작할것이라고 공포하였다. 2개의 미제침략군 핵항공모함타격단과 핵동력잠수함을 비롯한 전략자산들이 조선반도주역에 집결될 예정이다. 호전광들은 합동군사연습이 2단계로 나뉘여 최대한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진행될것이라고 떠들어대고있다.

얼마전 트럼프와 남조선괴뢰집권자가 그 무슨 《억제》를 위한 협력강화니 뭐니 하며 무모한 불장난소동에 대하여 특별히 모의하였다고 한다. 그에 따라 미합동참모본부의장 죠세프 단포드가 핵항방위대세점검을 운운하며 남조선을 행각하여 괴뢰군부우두머리들과 쑥덕공론을 벌렸다.

히스테리적인 상전과 얼빠진 주구의 무지스러운 전쟁도발공공이이다.

외신들은 《미항공모함 2척 70여일만에 또다시 조선반도 출현》, 《정세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으로 더욱 악화되게 될것》 등으로 평하고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의 사상 최악의 반공화국제재소동과 군사적도발망동으로 하여 지금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정세는 극도로 험악하다. 세계는 일찌기 체험한적이 없는 일촉즉발의 위기사태라고 우려하면서 숨을 죽이고있다. 랭전시대의 까리브해위기도 조선반도에 조성된 오늘의 정세와는 대비조차 할수 없다는것이 관측자들의 일치한 평이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은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으로 정세를 더욱 악화시키게 될것이다.

더우기 트럼프패거리들이 《참수작전》과 《특수작전》, 《대북선제타격》과 《예방전쟁》의 필요성에 대해 떠들어대는 속에 모험적인 반공화국핵전쟁연습을 공언해나선것은 정세를 완전히 통제불가능한 핵전쟁발발국면에로 몰아가는 무분별한 추태이다.

최근에도 미국은 해정양상의 마살군도부근에 대고 또다시 《미니트맨-3》대륙간탄도미싸일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 그것이 우리 공화국을 파녁으로 하고있다는것을 숨기지 않는다.

우리 국가에 대한 로골적인 핵위협공갈이고 정면도전이다.

극악무도한 침략각본들을 완성하기 위한 반공화국합동군사연습은 우리에 대한 적대의사의 가장 로골적인 표현이다. 그것이 실전에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할수 없다.

미국이 오늘까지도 비대한 힘에 미련을 품고 우리를 어째보려는것은 현실이 어떻게 변화되고 상대가 누구인가에 대한 초보적인 관별력조차 상실한 무모한짓이다. 단순한 독실관계도 따질줄 모르는 어리석은 행태이다.

덩지값도 못하는 지수기들을 제꺽질하여 전태미문의 대조선《제재결의》를 조작해낸 날강도 미제와 끈장을 보고야말 전체 조선인민의 결사의 보복의지는 하늘에 닿고있다. 그것은 자기 위업의 정당성, 백두산대국의 힘에 대한 당당한 자부심과 최후승리의 필연성에 대한 확신에 기초한 백년숙적과의 총결산의지이다.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에서의 군사적긴장을 고도로 격화시키고있는 미국이 아직까지도 전쟁을 태평양건너 멀리 남의 문전에서의 일이라고 망상한다면 그이상의 엄청난 실책이 없을것이다.

미국이 때없이 핵전략폭격기전대를 내몰아 우리의 전략적대상물들을 겨냥한 실전핵타격훈련을 강행하고 감히 《화염과 분노》, 《예방전쟁》따위의 나발을 불어대며 멋대가리없이 놀아대는것은 우리의 군사적위력에 질겁한자들의 단말마적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아메리카제국에만 권리가 있는것이 아니다. 자기가 하는것을 남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은 없다.

트럼프행정부는 스스로 미궁에 빠져들고있으며 미국력사에서 가장 난처한 전략적선택에 직면해있다는 국제사회의 독소리를 곰곰히 새길 필요가 있다.

즉흥적인 감정은 실수의 전제이다.

미국은 리성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해야 한다.

우리 군대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방망이를 계속 휘두르며 얼빠진 장난질을 해댈수록 자멸만을 재촉하게 될뿐이다.

제땅은 안전하고 죽음은 남의 일이라고만 우겨대는 사고는 미국에 백해무익하다.

리 효 진

ㄱ-711319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등록 위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6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독자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